





2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8394.65		920.57
	(-16.56)		(+69.20)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733		1542.00
	(+0.011)		(+10.00)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로... 800조 투입 팹 4기 구축

3대 메가프로젝트

삼성·SK서 800조 투자 계획
李 대통령, 이재용·최태원에
“국가 영웅” 허리숙여 인사
8월 반도체 강화 특별위 출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이라면서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호남 등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생산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4·6면>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방침으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 회장, 최 회장에 “우리 기업인을 대표해서 이 두분에게 국가의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이 이익을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며 “더 나은 조건을 갖춘 해외로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결단을 해

주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인사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옆에서 있던 이재용·최태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 최 회장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인공지능(AI) 대항시대라고 규정하며 오직 속도

전민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지·전력·용수 부족이 있는 수도권 대신,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 핵심산업 지역 투자로 AI 초격차를 이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충청권에 AI 데이터센터, 영남권에 AI로봇 등 퍼지컬 AI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지역행(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 핵심산업 지역 투자로 AI 초격차를 이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충청권에 AI 데이터센터, 영남권에 AI로봇 등 퍼지컬 AI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호남 등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생산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왔고,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산업 전략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조성’을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오는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출범하게 된다”며 “기업 프로젝트별로 관계 부처가 모두 포함된 TF를 만들고, 청와대에도 전담관을 뒀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신선란 1212억치 수입... ‘폭주 계란 값’ 잡는다

소비자 가격 10구에 5000원
지난달비 16%, 전년비 37% ↑
정부, 8월까지 2억여개 공급

계란 한 판 가격이 결국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수입란 2억 개 이상을 들여오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소비자가격은 특란 10구 기준 5000원을 돌파한 뒤 쭉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보다 16.33% 오른 520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3% 오른 수준이다. 올해 특란 10구 가격은 1월 3900원대로 올라섰고, 5월 4476원으로 직전월보다 13.55% 상승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사상 처음으로 5000원을 넘

어섯고, 이달 평균 가격도 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2~2026년 평년 가격은 3530원이다.

폭주하는 계란값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총 1212억원을 투입해 미국·태국·브라질 등에서 신선란 2억3139만 개를 수입한다. 지난주까지 전년 공급 부족분의 36% 수준인 2100만 개를 들여왔으며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달걀을 매주 448만 개 이상, 총 2112만 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란의 국내 반입 비용은 항공 운송비와 재포장비 등을 포함해 30구 기준 최고 2만원대에 달해 판매가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드는 구조다. 그럼에도 시장에는 5000~6000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어 차액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수입산 계란은

입고되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다. 롯데마트·슈퍼에서 판매한 미국산 신선란은 매일 조기 완판됐고, 이마트도 지난 20일 미국산 계란 약 2만 판을 5880원에 판매해 당일 오후 모두 소진했다.

대형마트는 정부와 협력해 할인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할 계란 행사를 진행 중이다. 농할 쿠폰을 적용하면 오는 7월 1일까지 ‘행복생생란(특란·30입·국산)’을 1인 1판 한정 6392원에 구매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공급망 확보와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겨울 발생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산란계의 20%인 1135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공급이 급감했다. 정부는 7월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으며, 일일 계란 생산량도 6월 4705만 개에서 7월 4900만 개, 8월 4952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입식 물량이 늘어난 만큼 하반기에는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산란율 저하와 폐사 등이 변수인 만큼 기상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대화·협력 통해 남북자 문제 실질 해결 노력”
▲이정현 “호남 기업투자, 보수가 먼저 환영·응원해야” /사진 뉴스시스

▲김의겸 “유시민 ‘재건축’론…핵심 지지층 한대신 토해낸 무당의 언어”
▲경찰, 김병기 ‘쇼팽백 의혹’에 “아직 혐의 단계 아냐…사건 곧 마무리”

▲국민의힘 “선관위, 입주청소 수준으로 청소할 것”
▲정점식, 與 ‘투표지 부족 특검’ 당론 추진 결정에 “환영, 野 추천 특검 임명해야”

구두개입·환헤지 등 가용 수단 총동원... 금리인상 가능성도

고환율 뉴노멀 시대

환율 대응능력 시험대 <골>

외환보유액 활용 등 총력전 양상
결정적 한방 부족... 환율추세 미지수
원화약세 완화 카드로 금리인상 거론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넘게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구두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외환보유액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이지만 대부분 이미 가동 중이거나 반복 사용에 제약이 있어 환율 추세를 돌릴 결정적 카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40분께 1544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 은행이 경계하는 것은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경제의 기초여건에서 벗어난 급격한 변동과 일방향 쏠림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1530원대 중반의 원·달러 환율이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1500원대 환율은 투기적 움직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국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500.1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596.8원) 이후 28년3개월 만이다. 28일 서울시내 환전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경고 이후 쏠림이 일부 진정됐는데도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흐름, 기업·개인의 달러 수요가 맞물려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는 쏠림이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 것 같다"며 "현재 환율은 강달러에 수급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외환보유액도 '양날의 검'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 경고를 보내 투기적 달러 매수와 환율 상승 기대를 누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해외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환전 지연 처럼 실제 달러 수요가 이어지면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카드는 국민연금 환헤지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의 기본 환헤지 비율을 15%로 높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환헤지가 집행되면 달러 매도 효과가 발생해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도 가동 중이다. 양측은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에서 조달하도록 해 시장의 달러 매수 압력을 줄이는 장치다.

국민연금카드는 실효성이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기관

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외환시장 안정 효과만을 앞세워 환헤지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기금 수익성과 독립적인 운용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외환당국이 보유한 가장 직접적인 실탄은 외환보유액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69억9000만달러다.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면 공급을 늘려 환율 급등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외환보유액도 특정 환율을 무기한 지키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시장 개입이 반복되면서 보유액 감소폭이 커지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시장이 특정 가격대를 방어선으로 인식하면 투기 세력이 당국의 개입 여력을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

허 교수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기금 운용 원칙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결과적으로 꺼낼 카드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미 통화스와프 '실현 가능성 낮아'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단번에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달러를 조달해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진하지 않고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2020년 코로나19 충격 때 600

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의 상설 달러 유동성스와프 상대는 캐나다·영국·일본·유럽중앙은행·스위스중앙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특정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려워질 때 작동하는 비상 안전판에 가깝다. 현재 고환율도 국내 금융회사가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보다는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흐름, 해외투자 등이 겹친 외환수급 불균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허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비상설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원화 약세를 완화할 카드로 거론된다. 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차를 줄이면 원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비용도 뒤따른다.

허 교수는 "한국이 금리를 움직였을 때보다 미국이 금리를 움직였을 때 환율 조정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한국의 금리 조정으로 환율을 낮추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한화오션, 내달 CPSP 등 대형 프로젝트 '윤곽'

캐나다 CPS 우선협상자 발표 예정
태국 호위함 건조사업 조만간 결론

한화오션이 올 7월을 전후해 글로벌 방산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결과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과 나미비아 비즈니스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프로젝트,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방산 수출 확대와 해양플랜트 실적 반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9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순수 건조비 약 20조원과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약 9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오션은 해군의 3000t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을 앞세워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G7·NATO 회원국 잠수함 수출에 도전한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오는 2044년까지 7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경제 기회 창출과 일자리 50만개, 국내총생산(GDP) 1000억달러 기여 등을 제안했다. PCL건설, 블랙베리 등 현지 기업과 67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화 전략도 강화했다. 경쟁사인 독일 TKMS는 NATO·EU 안보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16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경제활동, GDP 860억달러, 일자리 65만개 창출 효과를 제시했다. 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독일·노르웨이가 발주한 Type 212CD 잠수함 각각 1척의 인도 순서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태국 해군의 4000t급 차세대 호위함 1척 건조사업(약 8000억원)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태국은 오는 2037년까지 호위함 전력을 8척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후속 물량의 전조전 성격이 짙다. 태국 해군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스페인 나반티아,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ASFAT·TAIS 등 6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인도한 푸미폰 아둔야뎃함 건조 경험을,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함정 수출 실적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태국은 최소 20%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합성 성능뿐 아니라 산업협력 역량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방산이 외연 확장의 기회라면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개선의 열쇠라는 해석이다.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EPU)는 오는 7월 최종투자결정(FID)이 예상되는 나미비아 비즈니스 FPSO 사업자 선정에 주

력하고 있다. 초기 개발비만 최대 100억달러(약 15조원)가 투입되는 초심해 유전 프로젝트다.

현재 수주전은 거제사업장의 단일 야드 일괄 건조를 앞세운 한화오션과 중국 조선소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싱가포르 SBM오프쇼어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수주는 EPU의 고정비 부담을 낮출 핵심 카드로 꼽힌다. 한화오션 해양·에너지 부문은 지난해 각각 108억원, 3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739억원의 적자를 냈다. 회사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교두보로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FPSO 3기를 건조하는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FPSO를 수주하면 모파네 유전 등 나미비아 해역에서 이어질 후속 심해 플랜트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metro

3분기 제조업 BSI 상승... 반도체 113 '최고'

상의 수출기업 중심 경기전망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전자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전분기보다 개선됐다. 다만 수출기업 전망이 큰 폭으로 반등한 데 비해 내수기업 전망은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중동전쟁 여파로 하반기 경영계획을 조정할 기업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47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6)보다 4포인트(p) 오른 80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100을 넘으면 해당 분기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BSI가 70에서 86으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기대감이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내수기업 BSI는 78로 전분기와 같아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13을 기록해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도체는 올해 1분기 120, 2분기 118에 이어 3분기에도 기준치 100을 넘기며 3분기 연속 업황 개선 기대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는 화장품은 100을 기록했고 조선(95), 전자·통신(93), 전기장비(92)가 뒤를 이었다.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부진했다. 시멘트·레미콘·유리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은 장미철 건설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해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정유·석유화학은 전분기보다 8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지만 중국발 석유화학 제품 공급과잉 우려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대기업 BSI는 88, 중견기업은 86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은 78에 그쳐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은 하반기 기업 경영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동전쟁으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5.6%가 '변동 있음'이라고 답했다. '변동 없음'은 44.4%였다.

경영계획을 수정한 기업들은 주요 변경 사항으로 가격·납품단가 조정(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조달 규모·방식 조정(56.4%), 운영비용 관리(41.5%), 생산량·기동률 조정(32.1%), 신규 투자 규모·시점 조정(19.7%) 순이었다.

대한상의 강민재 경제정책팀장은 "제조업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환율 변동성 관리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AI데이터센터 15GW 시동... 로봇·배터리·조선 판 키운다

용인 조기완공, 메모리 주도권 속도 HBM 폭증 대응 후공정 역량 보강 온양·천안·청주 패키징 라인 확대 전력·용수·인허가 지원 등 속도전 소부장 안정화·미래 칩 생태계 육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민간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들을 주축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전력망, 배터리, 조선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총괄하며 전국 각지에 거대한 제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 등 각지의 주요 생산시설을 확충해 한국을 첨단산업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전국 주요 사업장을 아우르는 총 47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다.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드라이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호남) 지역에 총 800조원 규모의 메모리 팹(공장) 4기를 구축한다.

양사는 또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도 앞당겨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거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해 직접 각사의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각각 2기의 팹을 구축한다. 총 투자금은 800조원이며, 각사가 400조원씩 투입할 전망이다. 양사는 정부와 협력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 인허가 부지·건축을 단축하여 생산능력 신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청권은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폭증하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온양·천안의 신규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건설과 청주 HBM 패키징 투자 등이 적기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한다.

◆삼성·SK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구축 집중

삼성전자와 SK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삼성은 반도체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로봇, 배터리, 조선,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 전국 곳곳에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은 내부용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

미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삼성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신재생 필수품인 배터리에너지시스템(BESS)용 배터리를 경남과 울산에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기가 생산 중인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반 서비스 트레이트의 경우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소비자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남 솔라 시도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솔라 시도 AI 데이터센터는 정부 AI 전환(AI) 지원 헤드쿼터로 금융, 국방, 공공 서비스 AI 지원, 대학·연구소·기업 연구 개발(R&D) 역량 강화, 산업 피지컬 AI 지원, 연관 산업 생태계 생성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호남의 무탄소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호남에 태양광 발전 설비, 원전 기반 수소 생산시설, 그린수소 R&D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 고창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첨단 물류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의 전략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한다.

삼성그룹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1000조 원 이상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15GW 청사진 제시 2035년 겨냥 컴퓨팅 인프라 승부 구미 로봇·울산 배터리 사업 강화 거제 조선·송도 바이오 축 재편 AI팩토리 앞세워 아태 허브 공략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10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능생산시장을 만들어 사회의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10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아닌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총 15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전력과 부지가 확보된 여러 지역에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0.5GW에서 1GW 단위로 쪼개 최대한 빠르게 지을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1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참여자를 통해 2035년까지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된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AI Factory)'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APAC)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양성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장(팹·Fab)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약속한 2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첨단3지구는 두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더 강력해진 혜택의 국가대표

ALL YOU NEED 드림팀

혜택을 적립해주는 ALL

KB ALL point 카드

포인트 최대 1.7% 적립
기본 0.7% + 주말 0.5% + 음식/교통/통신 0.5%

딱! 혜택을 맞춰주는 YOU

KB YOU Wish 카드

KB PAY 10% 할인
음식점·편의점/통신 10% 할인
OTT 30% 할인

꼭 필요한 혜택을 챙겨주는 NEED

KB NEED Pay 카드

간편결제(Pay) 최대 15% 할인
다지털 콘텐츠·멤버십 30% 할인
온라인배송물 5% 할인

*KB ALL point 카드: 적립혜택 전월 이용실적 없음, 자세한 적립 조건은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참조 / KB YOU Wish 카드: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 / KB NEED Pay 카드: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

□ KB ALL point 카드 연회비: 국내외경용(K-World(UPI), Mastercard) 일반 1만 5천원, 모바일단독 9천원, 국내외경용(Visa) 일반 2만원, 모바일단독 1만 4천원

□ KB YOU Wish 카드 연회비: 국내전용/국내외경용(Mastercard, Amex) 일반 1만 5천원, 모바일단독 9천원 □ KB NEED Pay 카드 연회비: 국내전용/국내외경용(Mastercard) 일반 1만 9천원, 모바일단독 1만 3천원 ■ 연회비: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율 적용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외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연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업법 제206-C2b-0869호 (2026.06.12~2027.06.11)

삼성·SK '전공정 팹' 호남行... 소부장 협력사 함께 짐 싣는다

양사 400조씩, 총 800조 투입
메모리 전공정 클러스터 조성
삼성 '광주', SK '서남권' 제시
부지·인재 등 장기계획 필요
동시 추진 시 건설 수급 문제도
전공정, 비수도권 확장 '의미'

호남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떠오른다. 삼성과 SK가 호남에 투입하는 투자금만 800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을 웃도는 규모다. 양사가 서남권에 전공정 클러스터를 나란히 조성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됐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도 호남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29일 양사 발표에 따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전공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800조원은 올해 정부 총지출 예산 727조9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삼성은 그 거점으로 광주를 후보지로 제시했고,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새 클러스터 부지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두 거점 모두 짐을 직접 만드는 전공정 중심이다. 양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전공정 생산라인이 들어서면 협력사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동반 진출은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를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고, 수율 관리를 위해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후공정·패키징보다 훨씬 넓은 협력사 기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전공정의 특성이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엣지 기업에게 협력사와의 적기 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남권 클러스터가 협력사에게 매력

적인 사업 기반이 되도록 동반 입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솔브레인, 이수페타시스 등 협력사가 함께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남에 들어서는 것은 반도체 팹만이 아니다. 삼성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에 AI 데이터센터, 호남 일대에 태양광·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시설, 전북 고창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함께 짓는다.

광주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히트펌프·공조기 생산시설도 들어선다. 반도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에너지·데이터센터·물류가 한 벨트로 묶이는 셈이다. 거점 분산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는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가 높아 항공 물류로 운송되며 품질도 전 사업장에 동일한 표준이 적용돼 거점과 무관하게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하면 오히려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생태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 협력사 이전, 인력 양성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용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만 약 9년이 소요됐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전공정은 후공정보다 훨씬 어렵다"며 "대규모 투자와 인력, 전력·공업용수가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려워 5~10년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가 같이 가야 하는데 부지를 알아봐야 하고 인재들이 얼마나 올지 등 따져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소부장 기업까지 함께 이동해 반도체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팹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건설

인력과 장비 수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팹별 클린룸 가동 시점을 단계적으로 나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연속적인 투자가 국내 건설 경기와 연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전공정 거점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공정 분야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 주요 인프라를 새로운 지역에서 확보해 다극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태계 인척의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기업이 특정 클러스터에 투자할 때는 그에 따른 지원금과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가장 우려됐던 전력·용수를 정부가 커버하겠다는 것은 광주·전남에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과 거점도시 조성으로 투자를 뒷받침하고, 광주·전남 지자체도 통합 지원금 일부를 인프라에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 연간 GDP 맞먹는 2655조 규모 국내 투자

평택·용인 클러스터에 2030조
호남 425조, 충청 140조 배정
영남 60조 들어 제조업 AX·RX

삼성이 사상 최대인 26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천문학적 액수로,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팹을 새로 짓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삼성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평택·용인 등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0조원을 집중하고, 호남·충청·영남에 625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구조다. 신규 투입분은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정밀 기술(IT) 부품·소재가 축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삼성과 SK 등이 함께 제시한 지역 투자 구상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국내 기업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핵심은 호남이다. 삼성은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호남에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광주에는 신규 반도체 Fab을 건설하고, 스마트가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 기흥·화성과 평택, 용인에 이어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용수·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등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짚었다.

광주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수도권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양대 핵심 거점이 된다.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전공정 팹으로 선정했으며 충남 아산을 후공정 팹 건설 투자지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후공정 패키징 공장만 거론됐으나 전공정 팹까지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호남에서는 삼성SDS가 해남 솔라시도에 AI 데이터센터를 세워 최첨단 소비러 AI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소비러 AI는 해외 빅테크 의존 없이 한 국가가 주체적

으로 개발·통제하는 독립 AI 생태계로, 솔라시도 센터는 금융·국방·공공서비스 등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맡는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비와 원전 기반 수소 생산시설, 그린수소 실증단지 등에 투자하고 전북 고창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설한다.

충청에는 총 140조원이 배정됐다. 천안·온양의 최첨단 HBM Fab 구축에 56조원, 아산의 폴더블 등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기지에 67조원이 투입된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1인치 이하 초소형 고해상도 패넬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등 몰입형 기술(XR)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다.

천안에는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글로벌 마더 팩토리, 세종에는 삼성전기 AI 서버용 패키지 기반 라인이 조성된다.

영남에는 60조원을 들여 주력 제조업에 AX와 로봇 전환(RX)을 집중한다. 구미에는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와 함께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 삼성 SDS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부산은 삼성전기 MLCC·최첨단 패키지 기반, 울산은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거제는 삼성중공업 고부가가치친 건조 거점이 각각 강화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상황에 적시에 대응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투자계획을 환영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반도체 수출은 5월 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구남영 기자



metro

SK하이닉스, 용인·청주·서남권에 1100조 투자

서남권에 400조 단계적 투입
용인 600조, 청주 100조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용인·청주에 이어 '제3의 메모리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청주, 서남권을 아우르는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서남권에 400조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이다. 회사는 용인과 청주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다 AI 메모리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생산 거점 마련에 착수했다. 서남권에는 부지 확보부터 팹 건설, 생산설비 도입까지 총 400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인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지역"이라며 "구체적인 부지는 전력·용수·교통 등 인프라 여건과 부지 확

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서남권을 선택한 이유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 가능성과 정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의지를 꼽았다. 대형 팹은 착공부터 생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AI 메모리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지금부터 차세대 생산거점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생산거점 투자도 확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2045년으로 계획했던 4번째 팹 건설 완료 시점을 2033년으

로 12년 앞당긴다. 다만 600조원 전체 투자금이 2033년까지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생산설비와 장비 투자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청주에는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신규 팹과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을 담당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도 강화한다. 회사는 청주를 낸드와 HBM,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AI 메모리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대규모 투자의 배경으로 AI 메모리 공급 부족 가능성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생산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HBM은 일반 DRAM과 같은 용량을 만들더라도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해, 그만큼 생산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충분한 생산능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산거점인 이전의 역할도 유지한다. SK하이닉스는 "이전은 앞으로도 R&D와 첨단 공정을 이끄는 회사의 본사이자 중심 거점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재원은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투자 원천에 입각해 시장 상황을 살펴 가며 조달의 규모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eon@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금융그룹 창업 44주년

금융보국의 창업이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026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오늘 본회의 강행” vs “협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 “오늘 넘기는 일 없을 것”
국힘 “일방적 국회 운영” 비판
상임위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



한병도(왼쪽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또 결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직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 2+2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양보)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국민 뵈는 날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결심이 섰다. 의장에게 국회를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원 구성 관련될 것을 즉각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내일은 국회 마비 상태를 종식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꼭 본회의가 소집돼, 국회의장이 상정한 상임위 명단에 기초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서 결국은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강행하려면

(18개) 다 가져가라고까지 선언을 했다”며 “국회 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시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어 국민들께 불면목이 없다”며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신속한 원 구성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힘 뭉치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부터 의원님들 모두 비상대기해 주시길 바란다.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슨 염치로 가져가겠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나”라며 “자신들의 권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각종 악법을 브레이크 없이 국회에서 찍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관습법에 따라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를 강행하는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두고 與 “지역차별” vs 野 “관치 개입”

민주, 균형발전·정책 필요성 강조
국힘,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상적 의식에 내재된 지역 차별주의도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며 결정 과정에서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대해 “반도체 산업 변명과 성장, 5G3특이란 국가 균형발전 맞물린 중차대한 과제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나”라며 “국가 경쟁력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정부가) 오늘 국민과 지역 모두 납득할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 보며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최

선 결과 위해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의 데이터센터, 영남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호남 특혜식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지역을 갈라치는 생각 외에는 고차원적 담론 하나 없는 정당이란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라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이번 투자 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정책의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확

보한 데서 발휘된 결과”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결정주체를 추궁하며 사견을 전제로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

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호남의 청년에게도 세계 최고 산업에 도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 투자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과 조기 가동이 먼저”라며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용인에 있는 기존의 초격차 생태계가 흔들리면 호남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호남은 가뭄도 잦다”며 “군 공항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여기에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대통령 국정지지도 46.5%... 6주 연속 하락

금·부정 오차범위 접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46.5%, 잘못한다는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46.5%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

다’는 응답률은 49.5%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했다.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은 지난 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정 응답률이 긍정 응답률을 앞섰다.

권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

정 평가 응답률은 제주 74.1%, 광주·전라 73.1%, 대전·세종·충청 49.9%, 인천·경기 46.4%, 부산·울산·경남 43.2%, 서울 40.0%, 대구·경북 34.3%, 강원 33.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李, 내달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

정부 정책 관련 입법 과제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한 직무대행과 원내부대표들을 초청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7월 임시

국회, 더 넓게는 9월 정기국회 등을 앞두고 이뤄지며 정부 정책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서울 모처에서 하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사예진 기자



#1 김영규 님의 이야기

“평소에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한 번에 가입할 순 없을까요?”

고객의 이야기로 ‘가장 쉽게’ 바꿔드립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의 이야기로
요금제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복잡한 요금제는 알아보기 쉽게,
혜택은 나이에 맞춰 알아서 제공

통신의 기본, 요금부터 심플하게
모바일·인터넷·결합, ‘올인원’ 상품으로
가장 쉬운 통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신을 심플하게

Simply. U+

자세한 내용은 U+공식온라인스토어 및 약관 참고

올인원 상품은 6개월 한정 프로모션 상품 (프로모션 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금융당국, 카드론 잔액 '예의주시' 카드사 보고, 월→일 단위 조였다

금감원, 카드사 관리상황 점검
카드론 잔액 43조 사상 최대치
"촘촘한 보고로 수시 관리나서"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카드론 잔액과 관련해 하루에 한 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월 단위 보고에서 일 단위 보고로 바뀐 셈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 증가를 예의 주시하는 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것. 최근 카드론은 43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카드론 관련 일일·주간 보고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카드론 잔액을 일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카드론 보고를 촘촘하게 하면서 카드론 잔액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관련 일일 보고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5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월 단위로 보고가 이뤄졌으나,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자 보고 체계가 더 강화됐다.

실제 카드사 9곳(삼성· 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카드론은 지난 4월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서울 시내 한 자동현금인출기(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이미지. /뉴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42조5850억원, 2월 42조9022억원으로 증가하다 3월 42조9429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4월 42조982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달(43조2534억원) 다시 43조를 넘어선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에 더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수요가 확산되면서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의한 제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겹치면서 카드론 잔액은 계속해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금감원이 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일부 카드사를 불러 총량 관리 강화를 요구한 데 이어, 내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을 소집해 카드론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카드론 관리 한도를 못 지킨 카드사들을 소집해 현장 상황과 관리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를 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관리 한도나 방안 없이 카드사들을 소환하고, 보고 체계를 수시로 하라는 것이 결국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의도일 것 같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metroseoul.co.kr



metro

금융지주 저축은행 '수익 악화' 부실위험

부동산 PF·대출부실·경기침체 영향
IBK·KB·NH 저축 등 신용등급 하락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금리 대출 부실 등을 중심으로 기존 수익성이 악화된 데 더해 경기 침체 장기화·국면으로 추가 부실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신용도를 'A'에서 'A-'로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저축은행의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했다.

주된 요인은 수익성 악화다. IB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년간 순손실은 각각 마이너스(-)299억원, -478억원, -504억원이다.

KB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두 차례 큰 적자를 냈다. KB저축은행은 2023년과 2025년 각각 -936억원, -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NH저축은행은 -562억원, -97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하나저축은행에서도 지난 3년간 총 64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은 5~6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특히, 1금융권과의 연계 영업을 실시하면서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익성을 끌어 올렸다.

현재 신용등급이 떨어진 금융지주 저축은행들도 지난 2022년에는 100억원 이상 순수익을 내던 곳들이었다. 당시 IBK저축은행은 184억원, KB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129억원, 2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금리 대출,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대출 규모를 키워왔던 만큼 부실이 커졌고,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쪼그라든 것.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KB저축은행 사업분석을 통해 "지난 2022년 상반기까지 여신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로 지난 2023년부터 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안재선 기자

서울 완판, 경기 줍줍 '청약시장 양극화'

서울 13곳 중 9곳 본청약 마무리
경기 33곳 중 24곳, 인천 10곳 중 5곳
본청약 이후 무순위·임의공급 진행

청약시장이 수도권과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미달로 무순위·임의공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두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청약홈에서 본청약을 진행한 서울·경기·인천 민영주택 5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3개 단지 가운데 9곳이 본청약에서 공급을 마무리했다.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가 모집에서 완판에 성공했다.

반면 경기에서는 33개 단지 중 24개, 인천에서는 10개 단지 중 5개가 본청약 이후 무순위 또는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특히 추가 모집 단지 33곳 가운데 22곳이 본청약부터 전 주택형이 미달을 기록했다. 영종하늘도시 대리수 어썬과 북오산자이 리버빌시티,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등이다. 서울과 갈

(올해 1~5월 수도권 본청약 결과)

구분	서울	경기	인천	합계
본청약 단지	13	33	10	56
본청약 완판	9	1	2	12
줍줍 진행	4	24	5	33
줍줍 2회 이상	1	8	1	10
올 미달	0	17	5	22

*올 미달이지만 청약홈에서 줍줍 진행하지 않은 건 제외. /홍두부·청약홈

이 청약 후 계약 포기가 아니라 초기 청약 수요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계약 포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 다샵 분당센트럴은 1순위 평균 경쟁률 51.3대 1, 인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지인은 11.9대 1을 기록했지만 이후 무순위와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라클라체이드프린은 26.9대 1, 래미안 알라비네는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각각 무순위와 임의공급으로 이어졌다.

홍두부 관계자는 "청약 접수 단계의 경쟁률이 반드시 실제 계약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청약 신청은 몰랐지만 계약 단계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나 분양가 부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묻지마 청약 사례가 함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시장 성장 위해 신뢰 뒷받침 돼야"

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이억원 금융위원장
"개별 특성 고려 보호체계 구축해야"

"우리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 중기부, 공정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금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12인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설치됐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이후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체계의 구축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세부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심의 및 확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금융접근성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현장 민원은 늘고 있다"라며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나타나는 만큼, 이제는 정책을 만

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AI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의 개별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정책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빈틈없는 소비자 보호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i1231@

DL이앤씨, 1.3조 목동6단지 재건축 수주

최고 49층, 11개동에 2184가구 규모

서울 목동 일대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DL이앤씨가 목동6단지를 수주했다. 사업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목동신사가지에서는 첫 재건축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7일 열린 목동6단지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86.2%로 시공사 지위를 가져갔다.

목동6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2184가구 규모다. 공사비는 1조2868억원에 이른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ACROMOKDONGREGENCY)'를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목동리젠시는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라며 "글로벌 설계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목동



아크로 목동리젠시 투시도. /DL이앤씨

최고 수준의 조망과 조경 특화 설계로 하이엔드 주거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흥국화재, H JMDC 의료 데이터 사례 공유

흥국화재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일본 No.1 헬스케어 데이터가 여는 보험상품 개발의 미래' 세미나에서 JMDC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의료 빅데이터 전문기업 JMDC가 국내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다. 보험상품 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의 JMDC 데이터 활용 방안

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국화재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JMDC의 일본건강보험조합 데이터를 도입해 상품개발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엽 흥국화재 차장이 'JMDC 데이터를 활용한 SI상품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LG전자, 흡봇 ‘로니’ 공개... 100℃ 스팀 등 프리미엄 승부수

강력한 청소 성능·인체공학 설계 독자 보안시스템 ‘LG 쉴드’ 탑재 “차원이 다른 사용경험 제공할 것”



LG 흡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RONi).

/LG전자

LG전자가 위생 관리와 공간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청소로봇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청소 성능뿐 아니라 설치 방식과 인테리어 요소까지 차별화해 프리미엄 가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청소 성능은 물론, 위생 관리 편의성과 디자인까지 혁신한 LG 흡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RONi)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로니는 고객의 주거 환경과 인테리어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방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공간에 설치하는 자동 급배수형 ‘히든스테이션’ ▲집안 어느 곳이나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한 물통형 ‘오브제스테이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

시된다.

히든스테이션은 거치대(스테이션) 높이가 15cm에 불과해 별도의 하부장 시공이나 기존 수납공간의 희생 없이 걸레받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청소로봇을 완벽하게 숨겨 미니멀한 공간을 완성하고 싶은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반면 오브제스테이션은 협탁 디자인을 갖춰 다양한 생활 공간에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 제품 높이, 손잡이 두께, 물통 인출 높이 등도 인체 공학 관점에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LG전자는 로니에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100℃ 스팀 기능을 적용했다. 청소 시 100℃ 스팀을 물걸레에 분사해 바닥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청소 후에는 스테이션에서 100℃ 스팀*과 온수 세척으로 유해균 4종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대장균)을 99.99% 없앤다.

청소 성능도 한층 끌어올렸다. 로니는 30W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180rpm(분당 회전수)으로 고속 회전하는 물걸레가 바닥의 찌든 때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로니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사물인식’ 기술과 본체에 탑재된 8개의 센서로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전선·화분·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120여종의 물체를 구분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물은 알아서 안전하게 회피하며, 오염물질은 최적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로니는 독자 보안 시스템 ‘LG 쉴드(LG Shield)’를 탑재해 수집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 키를 분리 저장하는 등 보안 위협을 최소화했다. 또한 청소 후 스테이션 도어가 닫히는 구조를 갖춰 카메라 노출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시장조사업체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이 2026년 70억5000만달러에서 2031년 132억9000만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홈 확산과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 급배수 등 프리미엄 기능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은 오는 7월 2일부터 LG전자 베스트샵과 옐지닷컴, 쿠팡 등에서 로니를 구매할 수 있다. 출하가는 히든스테이션과 오브제스테이션 모델 모두 219만원이다.

LG전자손장우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100℃ 스팀을 적용해 위생 관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화큐셀, 정부 R&D 기반 탠덤 모듈 실증·신뢰성 검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 수행 차세대 태양광 시장 선점 ‘청신호’



한화큐셀 판교 R&D센터에서 차세대 셀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 /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모듈 실증과 신뢰성 검증에 나서며 차세대 태양광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넘어설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태양광 등 신규 응용 분야로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일환인 ‘상용면적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서 한화큐셀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을 맡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이끈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3년간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모듈 효율 28% 이상, 1.7㎡ 이상의 상용면적 탠덤 모듈 구현을 목표로 핵심 공정 개발과 모듈화, 신뢰성 검증 기술 확보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둔 제조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연구기관과 함께 옥외 실증과 사업성 분석을 병행하며 성능과 신뢰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요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국내 차세대 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탠덤 셀은 빛을 파장대역별로 흡수할 수 있어 기존 실리콘 셀보다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탠덤 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로 실리콘 셀(29%)보다 약 1.5배 높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탠덤 기술은 무게 대비 높은 발전효율을 구현할 수 있고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보다 제조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기술 안정성이 확보되면 지상 태양광을 넘어 우주태양광 시장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화큐셀은 한국과 독일에서 운영 중인 탠덤 파이프라인과 이번 연구개발 과제를 연계해 상용면적 모듈의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 전환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2029년 탠덤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화큐셀 문수진 판교R&D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화큐셀은 축적해 온 셀·모듈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탠덤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케이블 제조현장 AI 도입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대한전선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개발(R&D)’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조업 AI 대전환(M.AX)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 과제다.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전선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정에서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생산-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주요 공정 변수를 예측·관리해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클라우드 기반 교육 솔루션 선봬

“유연하고 매끄러운 학습환경 제공”



삼성전자가 ISTE에서 삼성 교육용 전자칠판에 탑재된 새로운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교사들이 교실을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환경을 세팅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기반 계정 로그인으로 어느 전자칠판에서든 자신만의 수업 환경을 그대로 불러오는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오렌지카운티컨벤션센터(OCCC)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교육기술 전시회 아이에스티(ISTE) 라이브 26에 참가해 교육용 전자칠판에 탑재되는 새로운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다. ISTE 라이브는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ISTE)가 주관하는 행사로 80여 개국에서 500개 이상 기업과 약 1만7000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최신 교육 기술과 미래 교육 트렌드를 공유한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솔루션은 ‘삼성 계정 관리 솔루션(AMS)’과 ‘삼성 A

I 어시스턴트 앱’ 두 가지가 있다. 모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삼성 전자칠판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다.

김형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기기뿐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삼성 교육용 전자칠판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욱 유연하고 매끄러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Let’s Grow with LG전자’ 1기 교육생 모집

LG전자 취업준비 청년 역량 강화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지는 가운데 LG전자가 취업 준비 청년이 스마트팩토리·인공지능 전환(AI)·디지털 마케팅 등 미래 산업 직무 역량을 쌓도록 돕는 실무 교육에 나선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해 청년을 키우는 정부 사업에 발맞춰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정조준했다.

LG전자는 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전자’를 신설하고 1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 직업 훈련 사업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LG전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은 ▲스마트팩토리 ▲AI ▲디지털 마케팅 등 3개 트랙으로 나뉜다. 스마트팩토리 트랙은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비 운영, 생산 데이터 활용 등 제조 현장 직무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트랙은 데이터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LG전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하도록 했다. 디지털 마케팅 트랙에서는 콘텐츠 기획, SNS 채널 운영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실무를 다룬다.

1기 모집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준비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LG전자는 실무 프로젝트, 취업 준비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경험이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채비 전국 ‘PnC 서비스’ 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민간 급속 충전 1위 사업자 채비와 손잡고 ‘플러그 앤 차지(이하 PnC)’ 서비스를 전국 채비 충전소로 확대한다. 기존 현대차그룹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충전망까지 넓히며 전기차 충전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채비와 함께 PnC 기술 적용을 완료하고 전국 채비 충전소에서 PnC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피트 83곳에서 제공되던 PnC 서비스를 채비의 전국 약 1500개 충전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전기차 충전소가 회원인증카드나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PnC가 적용된 충전소는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 고객이 충전 케이블 연결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양성운 기자 ysw@

시몬스, '착한 침대'로 환아지원 확대... 6억기부 성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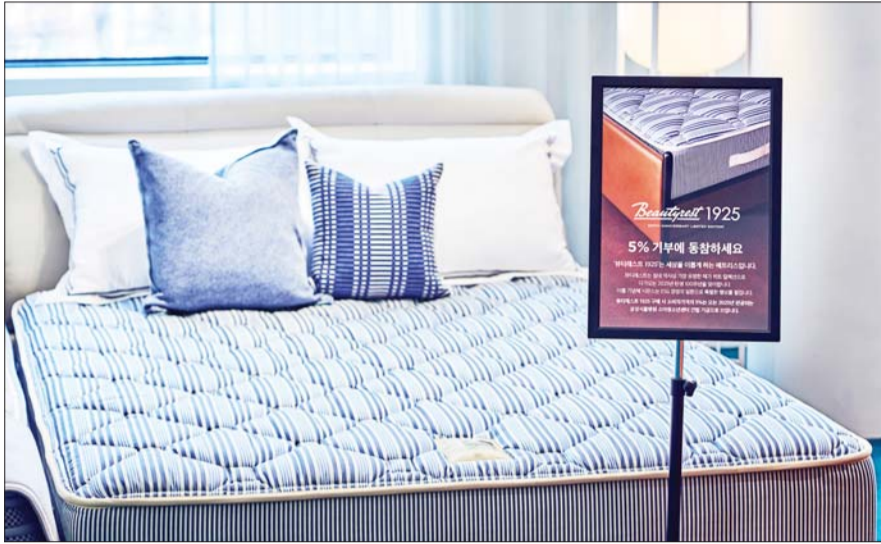
'뷰티레스트 1925' 3000개 넘게 팔려 판매 호조에 한정 운영 앞당겨 종료 삼성서울병원 센터리모델링에 투입 소아청소년센터 지난해 5월 새단장

후속 모델은 '에디슨 슈퍼싱글' 677만원 구매 때 33만8500원 적립 소아암·중증 희귀난치성 치료 활용

시몬스가 '착한 침대'로도 불리는 ESG 침대 두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몬스의 침대 모델 '뷰티레스트(Beautyrest)'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한정판 매트리스 '뷰티레스트 1925'에서 시작해 같은 뷰티레스트 라인업 가운데 꾸준히 팔리고 있는 또다른 제품인 '에디슨 슈퍼싱글(SS)'로 이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ESG 경영 행보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시몬스에 따르면 첫 ESG 침대인



시몬스의 '착한 침대' 1호 뷰티레스트 1925.

뷰티레스트 1925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인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000개가 넘게 팔렸다. 이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만 6억원이 훌쩍 넘는다. 침대 이름에 붙은 숫자 '1925'는 뷰티레스트 컬렉션의 탄생 연도를 의미한다. 뷰티레스트 1925는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다양하

다. 고객이 침대를 사면 가격에 따라 대당 13만8000~29만8000원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모인 6억원 가량의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쓰였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는 지난해 5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새 단장한 센터의

완공 시기는 뷰티레스트 브랜드를 출시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몬스는 당초엔 뷰티레스트 1925를 지난해까지 3년간 한정 판매할 0계획이었다. 하지만 착한 침대의 취지에 공감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예상보다 빠르게 팔려나가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끝냈다.

시몬스 침대의 두번째 프로젝트는 뷰티레스트 중에서도 자녀 침대로 인기가 높은 에디슨 슈퍼싱글로 이어졌다. 이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677만원으로 뷰티레스트 1925보다 높다.

시몬스 관계자는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기준으로 대당 5%, 금액으로는 33만8500원이 자동으로 기부된다"면서 "모인 기부금은 향후 삼성서울병원 소아암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들의 치료와 소아청소년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지난해부터 매트리스 제조사

포스코 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포켓스프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침대업계에선 최초 시도다. 항공 산업에서 두루 쓰이는 바나듐은 강철의 강도, 합금 강도 그리고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등 유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고압과 고온 등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몬스의 포켓스프링은 7회전 항아리 형태로 돼 있어 신체 곡선을 빈틈없이 골고루 받쳐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에디슨 슈퍼싱글 침대는 기능이 다른 세 종류의 포켓스프링을 배열해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를 든든히 지지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한국표준협회 '라돈·도론 안전제품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 UL 솔루션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 등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벤처기업 경기실적 106.9 '역대 최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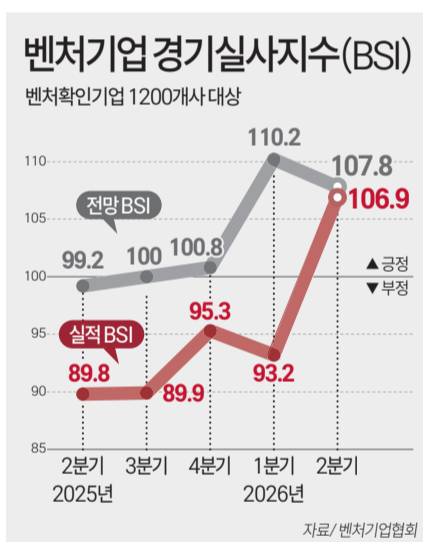
벤처기업협, 경기전망 BSI 조사 2분기 실적 BSI 106.9 기록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개선

올해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가 106.9를 기록하며 2024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107.8로 전분기의 110.2보다 주춤했지만 기준치인 100을 상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벤처확인기업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 조사 결과를 29일 내놨다.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는 106.9로 전 분기의 93.2보다 13.7포인트(p) 급등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2분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실적지수는 110.6으로 전 분기 대비 19.3p 급등하며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119.8)는 전 분기 대비 28.3p 급등했다. 통신기기·방송기기(101.4)와 기계·자

동차·금속(100.5)도 각각 19.8p, 17.4p 상승했다.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도 101으로 전 분기 대비 4.7p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회복했다.

기업경기 개선 주요 요인으로는 '내수 판매 호전(9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률은 전 분기(84.1%) 대비 8.1%p 상승해 내수 회복 중심의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기술경쟁력 강화(4.9%)'는 전 분기(19.5%) 대비 14.6%p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기 악화 요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8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상승(19.9%)'과 '인건비 상승(5.9%)'이 전 분기 대비 각각 1.5%p, 0.6%p 늘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했던 전망 BSI도 3분기에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기준치를 웃돌며 벤처기업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장애인기업 17만개 돌파... 소상공인 92%

중기부, '2024년 기준 실태조사' 종사자·매출액·영업익도 늘어

장애인기업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은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금융, 세제, 판로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장애인기업 숫자는 17만5176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6만466개, 2023년 17만4344개에서 3년째 늘었다.

장애인기업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체 종사자 수는 58만6595명(1.4% ↑),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70조 1830억원(0.8% ↑), 총 영업이익은 6조

6316억원(1.5% ↑)으로 전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만1270개사로 전체의 92.1%를, 중소기업이 1만 3906개사로 7.9%를 각각 차지했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기업생명행정통계자료를 연계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기부 K-바이오 벤처해외 진출 서울대병원·신한금융그룹과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서울대병원,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나갈 K-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기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서울대병원, 신한금융그룹과 케이(K)-바이오 글로벌 혁신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글로벌 K-바이오 벤처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발맞춰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유에스에이(BIO USA)'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돼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농촌 식료품 사각지대 지원

정선·청양·순창 등 7개 군 우선 대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지역이 1차 대상으로, NH투자증권이 출연한 10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7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군에는 각각 1억 원씩 지원한다. 각 군은 지방정부 자체 재원도 함께 활용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형, 주문배달형, 혼합형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순창군·영양군·정선군은 냉장·냉동 탭차가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장터 방식으로 진행한다. 남해군은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주문을 접수하고, 취약계층의 집 앞이나 경로당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주문배달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안군·장수군·청양군은 이동식 차량 판매와 사전 주문 물품 개별 배송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을 택했다.

각 군은 차량 구입·개조, 운영 준비, 주민 대상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내 식료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왼쪽에서 3번째부터) IPARK 현대산업개발 박희운 개발본부장, KCC 백창기 부사장 등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KCC, IPARK 컬러 아이덴티티 구축

IPARK 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 체결 컬러 매뉴얼·전용 컬러북 공동 개발

KCC가 IPARK 현대산업개발과 'IPARK 브랜드 컬러 아이덴티티 구축 및 컬러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KCC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의무환경 특화 컬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컬러 가이드 구축 ▲브랜드 전용 컬러 북 제작 및 운영 ▲현장 적용 기술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HDC그룹이 창립 50주년

을 맞아 추진 중인 아이파크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IPARK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IPARK를 주력 브랜드에서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할 바 있다.

KCC는 건축용 도료와 컬러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신규 컬러를 개발하고, 컬러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환경에서도 동일한 품질과 색감으로 실제 건축물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네이버, 'AI 검색' 시장 질주 vs 다음, 'AI 포털'로 추격전

검색시장 주도권 경쟁

네이버, 검색창서 'AI 탭' 바로 연결
내달 AI 브리핑 영역에 광고 도입
다음, 'AI 오버뷰·AI 모드' 확대
업스테이지와 차세대 포털 구축
기존 검색 엔진 역할은 지속 전망

국내 양대 포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네이버는 AI 검색을 중심으로 검색 생태계를 고도화하며 수익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업스테이지에 인수된 다음도 AI 기반 포털 전환을 선언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정식 출시했다.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AI 탭은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검색과 쇼핑,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클



네이버와 다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앞세워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AI가 만든 이미지

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분석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대화형 검색창 안에서 추천 장소를 예약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검색 이후 행동까지 한번에 이어갈 수 있다.

기존에는 검색어를 입력한 뒤 별도의 AI 탭을 선택해야 했지만 정식 서비스에서는 PC와 모바일 검색창에서 바로 AI 검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

였다. 베타 서비스 기간 일주일 내 재방문율은 36%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 AI 검색 고도화·수익화 속도 내는 네이버

AI 서비스 확대는 검색 점유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AI 탭 베타 출시 이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평균 63.82%였지만, 출시 이후인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66.34%로 2.5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일일 검색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1일부터 AI 브리핑 영역에 광고를 도입하며 AI 검색 수익화에도 나선다. AI 브리핑 적용 범위를 올래 안에 전체 검색의 약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를 구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업스테이지 품은 다음, AI 포털로 재도약

다음도 AI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모바일 중심 시장 재편과 네이버·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검색 점유율이 5%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AI 기반 포털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다음 달부터 검색 결과를 종합

분석·요약하는 'AI 오버뷰'를 전면 확대하고,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모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LLM)과 다음의 트래픽을 결합해 AI 에이전트 기반 차세대 포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플랫폼 정보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개방형 전략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도 기존 검색 엔진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정보 탐색과 요약에 담당하고 검색 엔진이 출처 확인과 사실 검증을 맡는 '하이브리드형 검색'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의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를 함께 활용하는 이용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AI는 정보 발견과 요약 단계에서 강점이 있지만 검색 엔진은 사실 검증과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 CNS, 브랜드·기술 결합 참여형 전시

내달 1일~20일 서울 DDP서 운영
공연·미디어 콘텐츠·토크·체험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 기반 전시

LG CNS가 브랜드 정체성과 자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고객 참여형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연결은 마음을 향한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예술 콘텐츠로 풀어내 관람객들이 기술과 브랜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은 ▲공연 ▲미디어 콘텐츠 ▲토크 ▲체험 등 4가지다. 일상 속 편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와 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시 기반은 '브랜드 경험(BX) 프로젝트'다. 이는 지난해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4관왕을 수상한 회사 고유의 플



LG CNS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AGV 로봇의 런웨이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LG CNS

랫폼이다. 'BX 웹'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기업 정체성 등을 디자인을 통해 통합해 보여주고,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글씨체와 캐릭터를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로봇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무인운반로봇(AGV)과 BX 캐릭터 '씨에너지'가 런웨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의상을 입은 씨에너지가 AGV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홀로그램 드라마는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미디어 콘텐츠는 핵심 모티프인 '커넥팅 스피어'를 활용해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도에 따라 점, 구, 하트 등으로 각각 다르게 보이도록 연출해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다양한 형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교통, 금융, 물류, 커머스 등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디바이스를 통해 소개한다.

토크 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과학·인문 분야 창작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주제는 기술 발전이 창작과 감각,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AI 시대 사회 변화와 인간의 역할 등이다. 이 밖에 회사 고유의 BX '씨에너지'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나만의 키링, 머그컵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엔씨, 요금인하 등 전국 PC방과 상생 강화

리워드 강화, 자동 충전기능 도입

엔씨가 전국 가맹 PC방 업주들의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 정책을 확대한다. 이용 요금 인하와 리워드 강화, 자동 충전 기능 도입 등을 통해 PC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엔씨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가맹 PC방을 대상으로 '리워드 실시간 지급 체계'를 도입했다.

엔씨 가맹 PC방은 업주가 G코인을 미리 충전한 뒤 이용자가 PC방 혜택을 받으며 게임을 이용한 시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도 충전 금액에 따라 보너스 G코인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추가 적립률을 확대해 업주 혜택을 강화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평균 서비스 이용 금액도 약 13% 인하했다. 이를 통해 PC방의 고

정 운영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제 편의성도 개선했다. G코인 충전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잔고가 설정 금액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업주가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상생 정책의 핵심인 'NC 파트너 PC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선택형 가맹 프로그램으로, 신작 게임 설치와 매장 홍보, 운영 지원 등에 협력하는 PC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가맹점에는 G코인 추가 적립 등 현금성 혜택과 함께 이벤트 참여 기회, 매장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된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가맹 PC방 5235곳 가운데 1666곳이 가입해 약 3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엔씨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입한 매장에도 보너스 G코인을 소급 지급했다.

/최빛나 기자

KT, 공공기관에 '5G 업무망 거점형' 선봬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최초 적용
GMG 구축, 7개 지자체와 연계

KT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G 업무망 거점형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5G 업무망은 기존 유선 기반의 업무 인프라를 5G 무선 네트워크로 대체한 기업·공공기관용 통신 솔루션이다.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통해 시간·장소 제약없이 유연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기업·기관 사내망 보안 정책을 적용해 편의성·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번 '5G 업무망 거점형'의 핵심은 네트워크 인프라 효율성 강화다. 네트워크

보안 승인이 필요한 정부·지자체 등에서 이를 광역 단위 거점에 통합·구축하고 산하 지자체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중복 구축해왔다.

개발은 KT 미래네트워크랩에서 주도했다. 단말부터 중앙 네트워크까지 트래픽을 구간별로 분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기관은 공통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세부 기관 별로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규 업무망을 추가할 때도 대규모 장비 구축이 필요 없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최초로 적용했다. 5G 업무망 핵심 장비인 GMG를 구축하고 수원·파주의정부 등



경기도청 공무원이 5G 업무망 거점형을 활용해 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KT

경기도 산하 7개 지자체와 연계 업무망을 개통했다.

향후 상위 기관과 협력해 백오피스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상위 기관과 산하 기관 간 권한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객사의 운영 독립성과 인프라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스마일게이트, 모닥 기술인재 해커톤 열어

해커톤 'MODAC-THON 2026'

스마일게이트는 기술인재 커뮤니티 모닥(MODAC)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해커톤 'MODAC-THON 2026'을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해커톤은 '일하는 우리의 삶을 더 [...] 하게 만드는 작은 실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개발자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개발캠프, UNSEEN, 스마일게이트멤버십(SGM), 서강대학교 DHE 트랙 등 스마일게이트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 수료자로 구성된 모닥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무박 2일 동안 팀을 꾸려 직장인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현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현업 조직이 직접 해결 과제를 제안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피어 개발조직은 게임 플레이 및 QA 효율화, 시장 트렌드와 이용자 반응을 반영한 콘텐츠 인사이드 발굴 등 실제 업무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 주제 트랙도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개발과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승은 AI 응답 대기 시간을 팟캐스트 형태의 학습 콘텐츠로 전환해 기다림을 학습 경험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기엔앤' 팀이 차지했다. /최빛나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 3.0' 승부수... 글로벌 투자 플랫폼 출범

(회장·글로벌전략가)

홍콩법인, 'MAPS' 공식 공개
AI 기반 자산관리 기능 단계적 도입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투자 지원

“오늘은 시스템 하나가 열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투자철학이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는 지난 26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 공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을 미래에셋 홍콩의 새로운 20년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관 중심이던 홍콩 비즈니스가 리테일 투자자까지 확장되는 '비즈니스의 변곡점'으로 규정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29일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를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MAPS는 미래에셋의 차세대 성장 전략인 '미래에셋 3.0' 비전 아래 처음 공개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접목할 계획



26일 홍콩 현지에서 'MAPS by Mirae Asset' 공식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Stanley Chen Head of Wealth Management, Shasha Huang Head of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s,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GSO,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성준업 대표, 상해사무소 Elisa Zha 소장, 홍콩법인 Alex Sung Head of IT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이다.

박 GSO는 “우리가 만든 MTS는 단순히 주문하고 체결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 아니다”라며 “가격만 보는 앱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만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미래에셋의 철학이

흐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전통 금융 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을 첫 출시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글로벌 전략과 맞닿아 있다.

홍콩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이자 디지털자산 제도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이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지난 4월 홍콩 증권선물

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 GSO는 “미래에셋의 목표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홍콩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시작해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던 고객이 손 안의 미래에셋 플랫폼 하나로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MAPS는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구축해온 모바일 투자 플랫폼 운영 경험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다. 국가별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시장과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에는 외국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GSO는 플랫폼의 핵심 가치로 ‘클라이언트 퍼스트(Clients First)’도 거듭강

조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두고 단기 실적보다 고객의 장기적인 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게 회사에 좋은거보다 먼저 '이게 고객에게 정말 좋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 투자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며 “판매’가 아닌 ‘설명과 교육’으로 고객과 함께 가는 것이 미래에셋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으로 MAPS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투자 서비스를 결합한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MAPS는 미래에셋 3.0 비전을 고객 접점에서 구현하는 첫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라며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AI 기반 투자 서비스를 결합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더 넓은 투자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내달 10일 ADR 상장... 7조 수급 기대감

글로벌 자금·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반도체 구조적 성장세 지속 예상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7조원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기업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을 주도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9일 유튜브 웨비나 '반도체 시장 점검과 TIGER 반도체 ETF 투자전략'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ADR 상장을 통해 최소 7조원의 수급이 몰리고, 나스닥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기관투자자와 패시브 자금의 SK하이닉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대표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46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R은 미국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예탁증서다. SK하이닉스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DR 상장이 SK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6배로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보

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SK하이닉스 주식시장 접근성과 패시브 수급 차이 때문에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됐었다”며 “ADR 상장을 계기로 이 격차가 줄어들려는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 TSMC 사례도 제시했다. ADR 상장 이후 글로벌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ADR 가격에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이후 본주가 이를 따라가며 기업가치가 재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AI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경쟁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2단 HBM4E 샘플을 공급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개발 일정을 앞당기며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HBM 공급 확대를 요청할 정도로 AI 메모리 수요는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을 의미하는 칩플레이션(Chipflation)을 전망하는 등 업황 개선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가격과 수익성 개선이 단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 56조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금감원, 금융사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가 금융권 전체 자산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리와 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총 자산 7737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9000억원(21.3%), 증권 7조2000억원(12.8%),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원(3.5%),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투자 비중은 북미가 34조3000억원(61.4%)으로 가장 컸으며, 유럽 10조1000억원(18.1%), 기타 및 북서지역 7조8000억원(14.0%), 아시아 3조6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별로는 2026년까지 11조1000억원(19.8%), 2030년까지는 전체의 67.6%인 37조80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

해외 단일사업장에 투자한 32조3000억원 가운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6.45%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 일부 사업장에서 EOD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황·청산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의 EOD 비율이 35.93%로 가장 높았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업계 최초 '30억 이상' 고객 1만명 돌파

초부유층 고객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
2010년부터 운영한 채널 'SNI' 호응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 고객 수(법인 제외) 1만명 시대를 맞았다. 초부유층 고객 기반 확대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자사의 30억원 이상 개인 고객 수가 지난 19일 기준 1만645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5862명) 대비 약 81.6%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 고액자산가의 자산 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고객 자산이 2025년 말 약 1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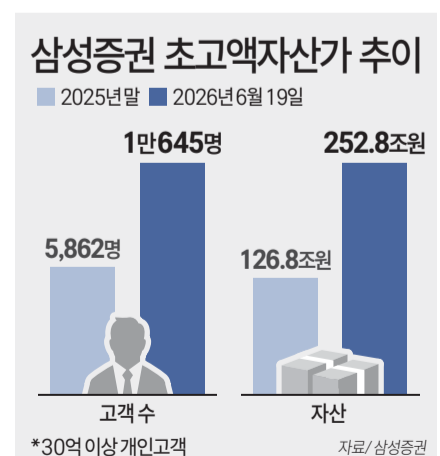
80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량 급증해, 252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 고객도 업계 최초로 2000명을 돌파했다.

삼성증권은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동향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등의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넘어설 만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의 포트폴리오(지분성 제외)를 분석해 본 결과, 2025년 말에는 국내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였던 반면,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57%로 늘어났다.

삼성증권이 2010년부터 운영한 초부유

층 전담 채널 'SNI'도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증권은 'SNI' 뿐만 아니라, 기존 전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문별 투자·승계·구조화 니즈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패밀리오피스', 세무·부동산·법무 등을 아우르는 '헤리티지컨설팅' 전문 인력과 신탁 상품 조직을 통합한 '헤리티지솔루션본부' 등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선미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삼성증권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초부유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가장 많은 초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며 쌓아온 압도적인 노하우는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삼성증권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 이어 “새롭게 부유층에 합류하는 고객들이 자산관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삼성SNI와 함께 새로운 자산시장의 기회를 선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정위, 삼성 협력사 상생협약...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1·2·3차 협력사 6700여곳 혜택
3.5조 금융지원·5조 사회환원 연계
에너지비·인건비 선제적 대금 연동

삼성 그룹의 상생협력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하게 확산 되도록 물길을 트는 대규모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에만 머무는 한계를 넘어, 거래망에 속한 2·3차 중소 협력사까지 선순환되도록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10일 이내 대금 지급... 1·2차 협력사도 하위 거래처 조건 개선 동참
상생협약의 핵심은 중소 협력사의 유동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성 확보를 위한 대금 지급 조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우선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상 기준(60일)보다 대폭 단축한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명절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

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와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삼성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은 하위 협력사의 대금 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동참 기업에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부여, 상생펀드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3.5조 원 펀드 가동 및 5조 원 사회 환원 약속 이행

아울러 삼성은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의 지원책을 2·3차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및 ESG 전환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 내용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기로 하는 한편,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AI로 취업확률 분석·채용 지원

'AI 고용서비스' 3종 시범 운영
자격증 취득 등 전 과정 코칭

인공지능(AI)이 구직자의 역량을 분석해 취업 확률을 알려주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추천해 주는 스마트한 고용서비스가 도입된다. 구인 기업 역시 AI를 통해 채용 조건 피드백과 인재 추천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구직자·구인기업·행정 직원을 위한 신규 AI 고용서비스 3종을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편의성과 답변 품질을 최적화한 뒤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구직자용 '취업확률 기반 구직컨설팅'은 희망 직종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직업훈련 등의 보완점을 짚어준다. 구직자가 역량 부족으로 취업확률이 낮게 나오면 'AI 직업훈련 추천'과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연계돼 자격증 취득부터 최종 채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인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은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임금이나 근로형태 등 채용조건 조정안을 제안한다. 또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세한 구인공고 초안을 작성해 주는 '구인공고 AI 작성 지원'과 추천 사유·이력서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

하는 'AI 인재추천'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용센터에서 구인공고 인증 업무를 하는 행정직원은 'AI 구인공고 검증'을 통해 성·연령 차별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구인공고 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AI 기반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경로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한 취업과 채용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12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AI 농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농업·농촌 AX로 소득 창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인공지능 대전환(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AX데이터로 연결되는 모두의 AI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AX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가치화 ▲모두가 활용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데이터 선순환을 위한 조직·제도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I)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현장

데이터가 가치평가와 거래를 거쳐 농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 현장과 기관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악·연결하고, 현장에서 자동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든다.

아울러 농업·농촌 AX데이터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가치화를 추진한다.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과 윈윈 활용지원, 안전한 거래체계 및 AX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거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한다.

또 농업·농촌 AX데이터 전략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거점인 '농업·농촌 AX데이터 허브' 구축도 검토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효과에 지역 경제 '양극화' 뚜렷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GRDP'

지난 1분기 전국적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역 간 편차는 꽤 크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GDP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3.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국내 5대 권역 성장률이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확대됐다.

권역별 GRDP 성장률은 수도권(2.5→5.2%)과 충청권(1.3→4.2%)에서 가장 높았다. 대경권(0.4→2.3%)과 동남권(0.5→2.0%)은 2% 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호남권(-0.2→0.0%)은 5대 권역 중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성장 격차가 컸던 핵심 요인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광업·제조업 성장률이 각각 12.1%와 5.4%에 달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서비스업 성장률도 3.8%와 3.4%로 1~2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석유·화학, 선박 중심 등의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경우 광업·제조업 성장률(0.1%)이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다. 호남권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선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동남권도 광업·제조업 성장률(0.9%)이 부진했다.

대경권의 경우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생산 호조로 광업·제조업 성장률(7.4%)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주택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해 건설업 성장률(-11.1%)이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시도별 GRDP 성장률도 산업 구조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중 1분기 GR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3.8%)이었다. 이

어 경기(6.2%), 서울(4.8%), 울산(4.4%)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어 광업·제조업 성장률(25.8%)이 가장 높았다. 경기의 광업·제조업 성장률도 14.2%에 달했다.

반면 전남(-0.8%)과 충남(-0.5%)은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역 원전이 정지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기타(전기·가스) 부문 성장률이 -8.8%를 나타냈다. 충남은 광업·제조업(-4.1%)과 건설업(-7.2%)이 크게 부진했다.

또 세종(3.2%), 대구(2.4%), 경북(2.3%), 제주(1.7%), 인천(1.6%), 부산(1.5%), 경남(0.9%), 전북(0.9%), 광주(0.2%), 강원(0.0%) 등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산업 구조에 차이가 있는데 1분기 3.8%의 성장률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는 반도체였다"며 "반도체 공장이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성장세가 갈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설명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시동

설명회 열고 공급계획 등 소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개시했다.

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BJFEZ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갖추게 될 경쟁력 및 남 컨테이너 배후단지 공급 계획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가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연계성, ▲항만 인프라 기반의 복합물류 비즈니스 환경 등을 소개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항만과 배후물류 단지가 연계된 복합물류 거점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물류기업이 이미 진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에 최적화된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북도, 구미 '미식관광' 육성 박차... 3년간 30억 투입

'K-푸드로드 문화관광 사업' 선정 대표 미식자원 '9미' 등 고평가 '구슬랭' 인증제로 맛집 신뢰 강화



구미푸드페스티벌. /구미시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자 경북도가 이를 계기로 미식관광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북(구미)을 비롯해 강원(강릉), 충남(공주), 전북(남원), 경남(거제) 등 5곳이 선정됐다.

'K-푸드로드' 사업은 단순한 먹거리 골목을 넘어 지역의 K-푸드 문화를 결합한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해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다.

선정지역에는 3년간 30억원이 투입된다.

구미시는 대표 미식자원인 '9미'와 K-푸드 3대장(라면·치킨·김밥)의 원조성, 연간 75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3대 미식

축제(라면·푸드·아시아)를 기반으로 청년 문화와 창업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 송정맛집을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K-푸드로는 ▲게릴라 팝업 페스티벌, 버스킹 및 문화예술 보부상 프로그램 등 상설 문화예술축제 ▲쿠칭 클래스 연계 가스트로 투어 등 상설 문화관광 체

험프로그램 ▲특화거리 조성 및 통합 브랜드 마케팅 ▲청년창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구미시는 미슐랭 가이드를 본뜬 '구슬랭(Gu-chelin)'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민과 미식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미의 9미를 찾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대표 맛집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9미는 '9미 라면 페어링' 특화 메뉴로 개발해 상설 판매하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구미시는 일회성 축제를 넘어, 365일 미식과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K-푸드로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구미 K-푸드로드를 도내 K-미식 관광의 대표 선도 사례로 육성하고,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글로벌 K-푸드 미식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관광객 선호도와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음식이며, 그 자체가 곧 여행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미식의 보고(寶庫) 경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음식"이라며 "미식 관광을 도정 핵심 과제로 집중 육성해 K-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교육디지털원패스 도입

부산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구축한 통합 인증 체계를 부산교육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도입한 것으로, 나이스(NEIS)에 등록된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계정(ID)으로 여러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립부경대-국립해양조사원

해양 기후변화 기술연구 협력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해양 재난 예방, 첨단 해양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배상훈 국립부경대 총장,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경대 대학본부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설·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기후 변화·해양 재난 대응을 위한 학술·기술 교류, 첨단 해양 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해양 산업 관련 산학 정보 교류 및 학술 대회 개최 등에 협력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국립부경대

제70회 원양승선실습 출항식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26일 부산 용호만 매패부두에서 제70회 원양승선실습 출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수해양산업교육과, 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생 78명과 승무원 34명 등 112명은 실습선 백경호에 올라 32일간의 항해에 나섰다.

학생들은 7월 27일까지 동해·남해·서해와 중국·일본·대만 해역에서 항해술, 어로 조업, 전자통신 운용, 선박기관 운용, 자동제어시스템 운용 등 STCW 국제협약 기준의 항해사·기관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몽골서 해외봉사·문화교류

경상국립대학교가 지난 26일 GNU국제관에서 '2026년 하계 GNU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교육·노력 봉사 문화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봉사단은 기존에 활동해 온 '52번 학교'에 더해 '34번 학교'를 신규 봉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봉사단원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태권도·K-팝댄스·과학수업 등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벽화 그리기·나무심기 등 노력 봉사도 병행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친환경 e-모빌리티 산단 조성

안강읍 갑산·근계리 일원에 조성 1805억 투입, 2028년 초 착공 4개 기업에 3.5만평 입주의향 받아

경주시는 안강읍 갑산·근계리 일원 24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1805억원을 투입해 RE100 안강 e-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2단계로 추진되며, 오는 7월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다. 경주시는 150MW 규모 풍력발전사업과 연계해 입주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0~20% 저렴한 전력을 20년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단계 사업부지에서는 사유지 144필지 중 78필지의 동의를 확보했고, 4개 기업으로부터 약 3만5000평 규모의 입주의향을 받았다. 입주기업에는 전기요금 할인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분양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산업단지를 통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e-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RE100 안강 e-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안강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경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36명 포상 신청

일제 경제적 수탈에 맞선 농·어민 제국주의 교육에 저항한 교사 포함

경남도가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36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2026년도 1차 포상 신청이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선 농·어민 20명과 제국주의 교육에 저항한 공립학교 교사 5명이 포함됐다. 시간별로는 1918년 고성군 동해면 어민항쟁 관련자 17명, 1929년 의령군 낙동농민조합 사건 3명, 1933년 교육노동자협의회 사건 5명, 1919년 3·1운동 참여자 6명,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 관련자 5명이다.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은 일본인 어업자들의 어장 독점과 노동 착취에 맞서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항일 운동이다. 경남도는 당시 체포된 어민 가운데 박용수·조영욱·유삼두·오동업·박



1929년 중의일보의 의령군 부림농민조합 사건 신문 기사. /경남도

원오 선생 등 17명의 공적을 확인했다.

낙동농민조합 사건은 의령군 부림면 농민들이 낙동강 연안 농민 보호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상재·안맹제·안상록 선생이 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교육노동자협의회는 1933년 경남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제국주의 교육 반대와 민족교육 실현을 목표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0개사 선정

스트라드비전·디에스텍 등 지원

경북 포항시가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강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10개사는 우수 유망강소기업에 스트라드비전·디에스텍 2개사, 유망강소기업에 할렘·이프·캐럿펀트·국민기계·시민제과·다원화학 6개사, 예비 유망강소기업에 이류노바이옴·포스코어 2개사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요건 심사·현장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 수준, 성장 전략, 연구 개발, 혁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AI 기반 자율 주행 비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스트라드비전은 2020년 유망강소기업 지정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오는 3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시의 유망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이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캐럿펀트·다원화학은 2023년 예비 유

망강소기업 선정 이후 각각 고고학·문화유산 분야 최초 CES 2025 혁신상과 K-BATTERY SHOW 2025 혁신상 소재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유망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선정 기업에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경영 환경 분석으로 비즈니스 스케일업 컨설팅 ▲PM(Project Manager) 제도와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R&D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업 임원진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선정 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주도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

오늘 '제품 안내서' 발간 230여개 기업 정보 담아

충남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한데 모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안내서'를 발간했다.

도는 30일부터 안내서를 책자와 e-카탈로그 형태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 지역 내 기업 현황과 판매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2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명과 업종, 대표

자, 연락처를 비롯해 대표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사진, 가격 정보 등을 담았다.

구매기관이 분야별·유형별로 필요한 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초판에서 미흡했던 제품·서비스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해 원하는 품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책자는 이달 말부터 도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e-카탈로그는 다음 달부터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충남=양대성 기자 zzica@

더본코리아, 예산시장 성공 모델로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지역개발 ESG 사업 전국 확대
음식·특산물·유희공간 결합
방문·체류·소비 선순환 구축

예산시장 누적 관광객 1000만명
청년 창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예산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 /더본코리아

국내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지역 상권과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 확대한다.

더본코리아는 고유의 음식 문화와 특산물, 유희 공간을 융합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개발 ESG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6일 충남 예산시장에서 개최된 '더본코리아 ESG 상생프로젝트 예산 지역개발 미디어 간담회'에서 "지방 활성화의 본질

은 단순히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외지인이 일부터 찾아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동인(動因)'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민·관·학 협력' 체류형 모델

현재 국내 지방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자생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로 조성된 전국 청년몰의 약 51%가 매출 감소를

겪는 등 단발성 이벤트나 시설 현대화 중심의 예산 투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역 특산물과 소도시 고유의 스토리를 축제·상권과 결합해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만 946만 명을 유치하는 등 강한 자생력을 증명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365만 3000명)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백 대표는 현재 전국 62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을 짚으며, "지

역민과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하나의 '윈 팀'으로 움직여야 지역 고유의 색깔을 지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된다"며 "먹거리 개발부터 청년 창업 지원, 유희 공간 재생, 축제 기획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통합 관리해 '방문-체류-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누적 1000만' 예산시장 성공 모델

더본코리아가 제시하는 표준 모델은 충남 예산시장이다. 하루 방문객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쇠뿔 상권이었으나, 더본코리아의 기획력과 예산군의 행정 지원, 지역 상인들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며 올해 5월 기준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초대형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을 단순 소매 공간에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정의한 결과다.

특히 단순한 집객을 넘어 지역 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타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보증금, 인테리어, 메뉴 개발, 창업 교육 전반을 전폭 지원하고 있

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지역의 소득 분배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 단기 수익 아닌 중장기 밸류업

더본코리아는 예산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춘 '커스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국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방침이다. 현재 충남지방 유희공간의 복합문화 전초기지와, 삼교시장 곱창특화 거리 조성, 전통주 체험단지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여주시의 유희시설에도 해당 모델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지역개발은 단기적 성과 지표보다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단순한 사회 공헌(CSR)을 넘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지속 가능 경영(ESG)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식품업계, 휴가철 앞두고 '저당·제로' 경쟁 본격화

풀무원다논·빙그레, 여름수요 공략
롯데칠성·일화, 제로 음료군 확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상 속에서 건강과 체중을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품·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과거의 다이어트가 무조건 굶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맛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당과 칼로리, 탄수화물 등 부담스러운 성분을 줄인 이른바 '식단 관리형' 소비가 대세다.

29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식단 관리형 소비를 겨냥해 당과 칼로리를 덜어낸 '로우스펙 푸드(Low Spec Food)' 라인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탈수로 인한 혈당 상승이나 야외

활동으로 인한 저혈당 등 체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워 세심한 식단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 발효유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은 대표 제품인 '액티비아 컵 플레인'의 당 함량을 식약처 농후발효유 당류 평균값 대비 약 30% 낮추는 리뉴얼을 단행하며 식단 관리족 공략에 나섰다. 빙그레는 제품 1개당 당 함량을 3.4g으로 낮춘 '더위사냥 저당 디카페인 커피'를 선보이며 여름 시즌 시장 선전에 나섰다. 프리미엄 저당 디저트 브랜드 라라스윗은 당류 4g 수준의 '저당 딸기 듬뿍바'를 출시하며 과육형 저당 디저트 제품군을 확대했다.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료 시장에서도 제로 열풍이 거세다. 롯데칠성음료는 제

로 슈거·제로 칼로리를 적용한 에너지 음료 '핫식스 글로우' 2종을 출시해 칼로리 부담을 지웠으며, 일화는 최영기 유가농축사 명인과 협업해 식사 후나 운동 후 갈증 해소에 적합한 무설탕·제로 칼로리 음료 '명인깊은녹차'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변화하는 간편식 소비 흐름에 맞춰 조리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강 식단 큐레이션에 나섰다. SSG닷컴은 최근 가격, 품질, 조리 편의성을 강화한 간편식을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대용량 식사빵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리 과정을 대폭 줄인 단독 개발 치

킨 제품 등이 카테고리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매출이 10배 급증하는 등 식단 관리와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외부 식품활동 외에도 일상 식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여름철 대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한 그린키위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조절해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당 지수(GI)가 51로 낮아 부담이 없으며, 식사 30분 전에 먼저 섭취할 경우 혈당 급등(혈당 스파이크)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신원선 기자

LF '아떼' 립 글로이 밤 14만개 판매 카톡전용 루비 컬러 선택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스테디셀러 '립 글로이 밤'의 신규 컬러를 채널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떼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립밤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컬러와 액세서리, 굿즈를 앞세워 선물 수요를 공략해왔다. 고객 수요를 반영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컬러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설명이다.

'립 글로이 밤'은 2024년 9월 출시 이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약 14만 개가 판매됐으며, 누적 매출은 42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톡 쇼핑라이브에서도 뷰티 카테고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롭게 선보이는 '립 글로이 밤' 12호 '루비(Ruby)'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다. 기존 제품보다 선명한 색상을 원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맑은 레드 컬러를 구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제일제당, 전통 방식 살린 '비비고 김부각' 더벤티, 필리핀서 동남아 공략 시동

참쌀·매운맛·새우맛 등 3종 선택



비비고 김부각 3종 제품.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프리미엄 김 스낵 신제품을 선보이며 건강스낵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반찬용 김 중심 사업에서 스낵 카테고리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연내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전통 제조 방식을 적용한 '비비고 김부각' 3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제품은 참쌀, 매운맛, 새우맛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품은 전통 방식으로 국내산 참쌀풀을 입혀 건조한 뒤 튀겨낸 것이 특징이다. 원초 선별과 원재료 설계를 통해 김 고유의 풍미와 식감을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참쌀 김부각'은 담백한 맛을, '매운 김부각'은 고추와 마늘을 활용한 매콤한 풍미를, '새우 김부각'은 새우의 감칠맛을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전통 제조 방식과 프리미엄 콘셉트를 앞세운 김 스낵 수

JJR BROTHERS와 MF 계약 체결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필리핀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26년 3분기 현지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벤티는 필리핀 F&B 기업 JJR BROTHERS FOOD CORP.와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더벤티는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2026년 3분기 필리핀 1호점 개점을 목표로 매장 운영 체계와 메뉴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지 소비자 성향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 시장 인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벤티는 필리핀의 젊은 소비층과 성장하고 있는 카페 시장을 고려해 이번 진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음료 메뉴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파트너사인 JJR BROTHERS FOOD



더벤티 최준경 대표(왼쪽)와 JJR BROTHERS FOOD CORP. 로보트 오 CEO(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벤티

CORP.는 외식, 카페, 유통, 물류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기반으로 필리핀 F&B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국 외식 브랜드를 현지에도 도입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벤티는 국가별 소비 트렌드와 상권 환경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핀 진출은 캐나다, 베트남, 요르단,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시장 진출이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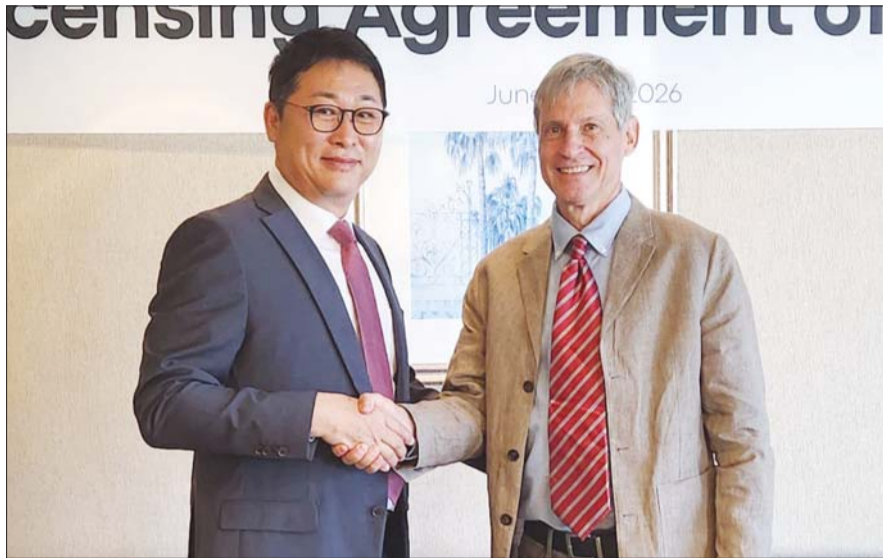
CJ푸드빌 '뚜레쥬르' '악뽀' 식감에 꿀 더했다 여름 디저트 신제품 공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여름 시즌을 맞아 과일과 다양한 식감을 활용한 디저트 신제품을 출시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악뽀' 트렌드를 베이커리에 접목해 바삭하게 깨지는 식감과 제철 과일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인 '악뽀 탱글탱글 브레드'는 얼그레이 크림과 레몬 커스터드, 꿀 원물을 넣은 빵에 화이트 초콜릿을 코팅해 바삭한 식감을 구현했다. 초콜릿 코팅과 꿀의 식감이 대비를 이루며 상큼한 풍미를 더했다. 함께 선보인 '탱글탱글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는 꿀과 꿀잼, 요거트 생크림을 조합한 제품이다. 케이크 상단에도 꿀을 올려 여름철 과일의 맛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K-지방분해로 복부·팔뚝 다듬는다... '마이크로 뷰티' 격돌

미용의료 다각화

GC녹십자웰빙-라지엘테라퓨틱스 지방분해주사제 라이선스 계약
얼굴 윤곽서 국소부위 지방 감소
메디톡스, '뉴비주'로 선점 나서
출시 2개월 만에 1만 바이알 판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서
히알루론산 필러 등 제품군 확대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왼쪽)와 라지엘 알론 블루멘펠드 라지엘테라퓨틱스 최고경영책임자(CEO).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미용의료 시장에서 보툴리눔 독소에 이어 '지방분해주사제'로 경쟁을 이어간다. 특히 체중 감량 이후 턱밑, 복부, 팔뚝 등 국소 부위에서 체형을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마이크로 뷰티'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다진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웰빙은 혁신 제형 도입으로 미용의료 사업을 강화한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25일 바이오기업 라지엘테라퓨틱스와 '국소 지방분해주사제'의 한국 사업화에 대한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GC녹십자웰빙이 이번에 도입하는 물질은 차세대 국소 지방분

해주사제다. 단 1회 투여만으로 주사 부위의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복부, 옆구리, 팔뚝 등 신체 다양한 부위의 지방 감소를 목표로 한다. 기존 지방분해주사제가 주로 턱밑 지방 개선 등 얼굴 윤곽 기술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됐다.

라지엘테라퓨틱스는 미국 임상 2상에서 해당 물질로 단일 시술을 진행해 턱밑, 옆구리 등의 지방 감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GC녹십자웰빙은 미용의료 포트폴리오를 적극 확대해 왔다. 에스테틱 기업 이니비오를 관계사로 인수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니보'를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급 스킨부스터 브랜드 '지셀리본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글로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GC그룹 측은 "GC녹십자웰빙은 기존 독신, 스킨부스터 등에 비만 치료와 체형 관리까지 더한 종합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독신 전통 강자 메디톡스는 국산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주' 출시로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뉴비주는 지난해 9월 제40호 국산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올해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뉴비주는 출시 단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 바이알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뉴비주 적응증은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이다.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쓰인다. 세계 최초로 콜산을 주성분으로 처방했고 부종이나 멍과 같은 기존 주사제 부작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도 미용의료 부문을 다각화한다.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를 출범하면서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턱밑 지방개선주사제, 스킨부스터 등 제품군을 늘렸다. 특히 스킨부스터 브랜드 마테기엘의 경우 동국제약 독자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활용하고 있다.

동국제약 측은 "기존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신시장을 파고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후발 주자들의 공세 속에서 대웅제약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영

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브이올렛'은 2021년 출시된 국내 1호 지방파괴주사제로, 96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 3상에서 반영구적 지방 파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선두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AMWC CHINA 2025'에서 브이올렛 임상 데이터와 실제 시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브이올렛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대웅제약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후속 전략으로 브이올렛을 앞세워 K에스테틱의 지배력을 넓히려는 복안이다.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글로벌 바디 컨투어링 시장은 2025년 약 3조원에서 2034년 약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에스테틱 수요가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맞물리며 국내외 미용의료 시장은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CJ올리브영, 성수에 'K-뷰티 생태계' 구축

'올리브영 뷰티 맨션 성수' 공개
뷰티디바이스 체험 '뷰티테크' 구역
글로벌 고객에 차별화 컨텐츠 선사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 권역에서 K뷰티 생태계를 확장한다. 기존 혁신 매장 '올리브영엔(N) 성수'를 중심으로 연구장 길에 집중되어 있는 K뷰티 열기를 유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서울 북성수에서 '올리브영 뷰티 맨션 성수'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고급 주택을 뜻하는 '맨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약 500평 규모의 4개 층으로 구성됐고 층별 공간을 여러 방으로 꾸몄다. 아늑한 저택의 분위기 속에서 K뷰티 브랜드를 탐색할 수 있다.

1층 입구에는 슌인숍, 팝업 등을 배치해 성수 상권에 별도 매장이 없는 입점 브랜드들이 신제품과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색조와 스킨케어 서비스를 설치했다. 전문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뷰티를 제공한다.

'뷰티테크' 구역은 새롭게 마련됐다. 글로벌 선호도가 높은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를 진단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 기반 더마뷰티도 고도화해 의료 관광 수요를 정조준한다.

현재 성수는 고도화된 K뷰티를 체험하려는 글로벌 관광객들이 모이는 핵심 상권이다. 올리브영은 이번 뷰티 맨션을 통

해 성수 상권 전반에서 K뷰티 흐름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들에게 한층 차별화된 'K컨텐츠'를 선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뷰티 맨션 4층은 뷰티 서적과 LP 전용 공간을 갖췄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뷰티 맨션은 글로벌 팬들이 극대화된 K뷰티를 경험하는 총 집합소인 동시에 입점 브랜드에게는 외국인 고객과 교류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성수 곳곳에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성수 전체가 상생하는 개방형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2024년 개점한 '올리브영엔(N) 성수'도 이미 국내외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핵심 기지로 성수에서 K뷰티 성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대학생 멘토링 '국인' 후원

'국인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 참여

애경산업이 미래 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 대학생 교육 봉사 단체다. 국가적, 국제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재일동포 3~4세 학생들을 지원한다. 글로벌 멘토링을 진행해 한국 대학생과 재일동포 학생이 교류하며 한국어를 확산하고 한국 문화를 공유한다.

애경산업은 여러 해에 걸쳐 국민 글로벌 멘토링 활동을 후원해 왔다.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고국의 정을 전하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한국 대학 진학을 희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 발대식'이 열렸고 애경산업은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애경산업

망하는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진학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제17회 국민 글로벌 멘토링에는 100명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오사카 금강학교를 시작으로 오사카 건국학교, 교토국제학교, 나고야한국학교, 시즈오카재단 등 일본 내 학교 및 기관에서 약 1000명의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친다. /이청하 기자

SK케미칼, MASH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박차

(대사이상 지방간염)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공동개발

SK케미칼이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협력해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신약 후보물질 'J2H-1702' 개발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J2H-1702'의 국내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앞서 지난 3월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신약파이프라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J2H-1702 실사를 진행해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J2H-1702는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이 독자 기술로 자체 발굴한 경구용 11β-HSD1 저해제다. 11β-HSD1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의 대사에 관

여하는 효소다. J2H-1702는 이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코르티솔 과활성을 조절해 지방 축적, 염증, 섬유화 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J2H-1702 임상 2a상을 완료했고 양사는 향후 국내외 임상과 개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는 "J2H-1702 국내외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SK케미칼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SK케미칼과 함께 J2H-1702의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선 SK케미칼 사업 대표는 "MASH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실사를 통해 J2H-1702의 경쟁력과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USA 현장에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정기원 부사장과 SK케미칼 박현선 사업 대표(오른쪽)가 'J2H-1702'의 국내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다"며 "앞으로도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 영역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신약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김지윤 생건마케팅부문장 선임

뷰티 브랜드 마케팅 이끈 전문가

동화약품이 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부문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인사를 단행한다. 동화약품은 신임 생건마케팅부문장에 김지윤 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생건마케팅부문은 생활건강본부 산하에서 뷰티마케팅팀과 건강식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지윤 이사는 다년간 뷰티 업계에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BM)을 이끌어온 전문가다. 2008년 LG 생활건강 색조BM 파트장으로 시작해 셀트리온스킨케어, 에이블씨엔씨 미샤 등을 거쳤다. 색조부터 스킨케어까지 폭넓은 카테고리리를 담당해 왔다. 2020년에는 중



근당건강 화장품사업 부문 이사로 합류해 제약 업계에서 화장품 사업을 이끌었다.

김 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2018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화장품 상품기획 전략과정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지윤 이사는 "129년 역사의 동화약품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건마케팅 부문을 이끌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뷰티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K-바이오 벤처기업 키운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술보증기금, 서울대학교병원과 '글로벌 K-바이오 벤처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장호식 CIB그룹장, 서울대학교병원 권성근 연구부원장, 기술보증기금 천창호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타이어뱅크, 국가유공자 후원금·물품 전달
 타이어뱅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충남동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동부보훈지청 손순욱 지청장 (왼쪽부터), 타이어뱅크 김종배 대표이사, 세종 사랑의 열매 이희정 사무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용마로지스, '마약퇴치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 전문 계열사 용마로지스가 마약류 의약품 수거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마로지스는 지난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용마로지스 류정하 경영기획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환경공단, 공공기관 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4일 열린 '2026 공공기관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속가능 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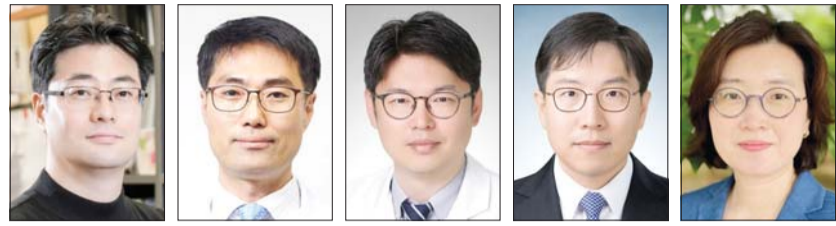
aT 여름 제철 농산물 판매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여름 제철 농산물의 활인 판매를 지원한다. aT는 제철 농산물 위주로 구성된 선보이는 이른바 '농부가바로팜' 기획전 가운데 '여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호박과 복숭아, 블루베리, 참외, 토마토, 정육 등을 포함해 샐러드채소, 제주무농약데몬청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간은 7월6일부터 8월28일까지다.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광동제약, 한정민 교수 등 '광동 암학술상' 시상

김광일·전홍재·김찬·오진경 수상
 의학연구 발전·국민건강 증진 기대

광동제약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15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세 부문에 걸쳐 한정민(연세대 약대학), 김광일(분당차병원 병리과), 전홍재(분당차병원 내과), 김찬(연세의대 내과), 오진경(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 교수 등 총 5명의 연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동 암학술상은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공동 제정했다. 2012년부터



한정민 연세대 교수, 김광일 분당차병원 교수, 전홍재 분당차병원 교수, 김찬 연세의대 교수, 오진경 국립암센터 교수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한정민 교수는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글루타민 수송체(SLC1A5 변이체)를 표적하는 새로운 계열의 억제제를 발굴했다. 암세포의 글루

타민 의존성을 차단하는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상의학 부문은 김광일·전홍재·김찬 교수가 공동으로 받았다. 세 연구자는 진행성 담도암 환자에서 혈액 속 순환종양DNA를 분석하는 액체생검 결과와 종양 조직 유전자 분석의 일치도를 규명했다. 액체생검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다수 논문 발표 부문 수상자인 오진경 교수는 한 해 동안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간암 진단 후 음주 습관 변화가 환자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리버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암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자들의 성과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국내의 학 연구가 발전하고 국민 건강이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강병중 "한국형 기업가정신 핵심가치는 '심청사달'"

(넥센그룹 회장)
 강 회장, 유엔 국제포럼 기조연설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유엔 무대에서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세계에 알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강병중 넥센 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026 유엔 중소기업의 날 국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이 지정한 '국제 중소기업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국제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강 회장은 이날 '인간 중심 이니셔티브와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강 회장은 연설에서 "AI 시대에도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기업 규모를 확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 COSOC) 회의장에서 열린 '2026 유엔 중소기업의 날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넥센그룹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미래 기회를 개척하며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핵심 가치로 '심청사달(心淸事達)'을 소개했다. 심청사달은 "마음을 맑게해 일

을 바르게 이룬다"는 뜻으로, 강 회장은 이를 '비움의 경영'으로 실천해 왔다. 욕심을 비우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업 혁신과 미래기회 포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석' 정신을 통해 미래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보며 "원대한 꿈을 갖자"는 의미로 스스로 월석이 라는 호를 지었다. 월석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가적 의지의 상징이며, 넥센(NEXEN)이라는 사명 역시 'Next Century'라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강 회장은 "한국형 기업가정신이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현대차·GS25 '현차는 빵빵' 출시

현대차는 GS25와 아이스크림 제품 '현차는 빵빵(사진)'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차는 빵빵'은 빵 사이에 크림치즈 맛 아이스크림을 넣은 샌드형 아이스크림이다. 지난 2022년 현대차 공식 SNS 만우절 캠페인으로 소개된 베이커리 제품 콘셉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졌다. 이번 제품에는 그랜저, 싼타페 등 현대차의 승용 차량 피부설 총 20종 중 1종이 무작위로 동봉된다. 제품에 동봉된 현대차 피부설 20종을 모두 수집해 인증한 선착순 3명에게는 각 200만 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증정한다. 이 외에도 최대 300만원의 차량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이승혁 수습기자

HS효성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그룹 차원 지속가능경영 비전 선포

HS효성그룹이 출범 이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본격화했다.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핵심 이슈를 공개하고 중장기 ESG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HS효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지주회사인 ㈜HS효성을 비롯해 HS HYOSUNG USA, Inc., HS효성토yota(주),



HS효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S효성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HS효성은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함께 성장한다(Rooted in Value, Growing Together)"를 선포했다. ▲성장 가치(Growth Value) ▲공유 가치(Shared Value) ▲신뢰 가치(Trusted Value)의 3대 전략 축을 구축하고 영역별 세부 과제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또한 회사별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이슈를 그룹 관점에서 통합하여 ▲고객만족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친환경포드프리오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과제별 관리 체계와 추진 현황,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담겼다. /차현정 기자 hyeon@

CJ대한통운, 물류현장 안전문화 주도

안전체험관 이수자 1000명 돌파
 CJ대한통운이 물류현장 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안전체험관 개관 이후 3년간 안전교육 누적 이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가하브에 문을 연 안전체험관은 현재까지 총 48회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우수한 교육 체계를 인정받아 물류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증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안전체험관의 역할은 회사내부를 넘어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물류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을 특정 기업의 관리 영역이 아닌 물류업계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확산시키며 물류산업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솜품 공모전

노사발전재단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터혁신의 가치를 확산하고 '일터혁신 상상컨설팅' 사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2026년 일터혁신 솜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터혁신을 의미하거나 상상컨설팅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라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총 15점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점) 5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8월 넷째 주에 발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인사 ◆부산시설공단 ◇1급 승진 △부산시민공원장 배종근
- ◆두산그룹 (두산팻팩) ◇상무 승진 △고현구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 II 대학 학장 김남기 △한국폴리텍 V 대학 학장 박영기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구호만 남은 지방선거... 실종된 복지비전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축제의 여운보다 아쉬움이 크다.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였음에도, 여러 지역에서 당선 이후 어떠한 비전으로 지역을 이끌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물론, 분야별 정책의 세부 내용조차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당선인들의 복지 공약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자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지자체장의 복지비전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공약은 지역의 구체적 여건을 외면한 채 '사각지대 해소', '지원금 확대', '수당 신설' 같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나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적 숙고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실현의 경로와 방법론은 공허했다.

복지 정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빈곤, 질병, 고립, 돌봄의 공백 등 삶의 각종 짐(疾苦)을 감내하는 이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숭고한 사업이다. 청년의 실업, 노인의 고독, 장애인 소외, 빈곤층의 절망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을 통해 그 무게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장이 복지 공약을 선거용 수사로만 다루는 것은 이 중대한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각 정당은 사회적 가치를 정련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일부 당선자들 역시 지역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전국적 복지 담론을 단순히 차용하기에 급급했다. 부실한 공약은 임기 내내 행정의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지방정부로 귀결되며, 그 해악은 고스란히 주민의 뒤통으로 돌아간다.

이제 당선인들은 정책을 행정의 중핵(中核)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복지 정책은 중앙에서 하달되는 획일적 처방이 아니다. 지역마다 인구구조, 산업 기반, 복지

인프라 등에서 고유한 맥락을 지닌다. 지역 주민의 필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 지방자치 복지 행정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

당장 출범하는 각 지자체의 인수위원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인수위는 선거 기간 미처 다듬지 못한 공약을 정교한 정책으로 가다듬는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복지·보건·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적극 결합시켜 그들의 제언이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가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배분의 공간으로 변질된다면, 시민의 삶이 아닌 내부 결속에만 복무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의 고단한 삶에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자다. 복지 정책은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가장 진지한 연대의 표현이다. 시민들 또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원의 현실성을 꼼꼼히 따져 보는 성숙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월드컵 축구와 한국 바이오산업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로 대중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든 축구 팬들의 유쾌한(?) 혹은 냉소적인 분석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 개인이나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은 자력 진출이라는 최고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렸다. 하지만 사령탑의 전술이나 조직 내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도된 실패'라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처했다.

이 답답한 풍경은 축구장만의 일은 아니다. 경제지 기자의 시각에서 복기해 보면 경

제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고 지구력을 찾아도 정책 방향성이 어긋나면 시장은 왜곡된다. 집값과 기름값은 내리지 않고 있으며 환율은 최고치라는 현재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 국내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대외 통상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괴로운 이야기들은 결코 월드컵처럼 외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는 사이에도 경고등은 점점 더 붉게 타오른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달레미를 겪는다.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부 조직 중심의 강력한 대책만을 촉구해야 할까 아니면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깨어나야 할까.

큰 숲을 그리는 방향성이 없다면 결국 각자 도생하다 지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외풍

은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전술의 부재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숫자로 증명되는 위기 신호에 정공법으로 맞서야 할 때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최근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운영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바이오기업에 직접 투자를 단행하는 등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전 세계가 탐낼 만한 기술력에 훌륭한 지원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셈이다.

신약개발과 첨단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은 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그칠 것이다. 상부 조직은 현장 책임자의 권한을 존중하며 흔들지 말아야 하고 현장 리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전술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안과 요행을 바라는 리더십으로는 눈앞의 진짜 경제 달레미를 결코 돌파할 수 없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5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재물운이 잠시 막힙니다. **60년생** 건강에 항상 유의하며 몸을 잘 살피세요. **72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8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 49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면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61년생** 이성이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3년생**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85년생** 모든 운이 좋은쪽으로 돌아갑니다.
- 50년생**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흔들림 없이 행하세요. **7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특히 주의하세요. **86년생**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51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5년생** 노력하지만 보람 없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87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 52년생**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기운이 이어지겠습니다. **64년생** 원하는 꿈이 너무 원대합니다. **76년생** 야속하지만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재물운이 너무 좋습니다.
- 5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5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77년생** 동쪽에 귀인이 있어 도움의 기운이 따릅니다. **89년생** 사업이 차차 전진이 있습니다.
- 54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66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7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되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사방에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 55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67년생** 원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아직 능력이 부족합니다. **79년생** 업종은 바꾸지 마세요. **91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 56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68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8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2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 5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일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81년생** 인간관계에 소홀하지 마세요. **93년생**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 58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70년생** 여행을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갈수록 힘들어지니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94년생** 길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될 수 있어 조심하세요.
-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부부 인연

부부 사이의 인연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이라면 무엇일까?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등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부인연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추사 김정희의 부부 이야기는 심금을 울린다. 추사 김정희는 9년간 귀양살이를 했는데 멀리 제주로 유배를 가서는 외로움을 달래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면서 입맛이 까다로웠던 그는 음식을 좀 보내 달라고 했고 부인이 이 씨는 병석에 있었음에도 추사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보내곤 했다. 천릿길 바다까지 건너 제주까지 도착하는 동안 음식은 다 상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천 리 멀리 있는 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당연히 상할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보냈을 것이다.

그런 추사의 부인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귀양 간 지 이 년 만에 명을 달리했다. "어서 몸을 추슬러 답장을 주시오."라고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대신 부인의 부고를 전해 들은 그는 제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음식 투정을 하였던 자신에 견딜 수 없어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애절한 심정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자못 비통하다. 조선 천하의 명필로 이름난 그였지만 임종도 지킬 수 없었던 지아비로서 참담한 마음을 글로 지었다. "료장월모송명사(料將月母送名師) 내세부처역지위(來世夫妻易地爲) 아사군생천리외(我死君生千里外) 사군지아차심비(使君知我心悲)". 뜻인즉 "월하노인을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내세에는 부부가 처지를 바꾸어서 나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남아 그대에게 나의 이 슬픔을 알게 할까나?" 월하노인은 월모(月母)라고도 하는데 혼인을 관장하는 신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8	7		2		
		2		6				4
		9		4	5			2
				9		2		
5	9							8 7
		7		1				
1			4	2		7		
	8			5		3		
2		6	7	3				4

5					2	6		4
	4				3			8
8				4	9			
7	8	2	6		4			
		4				7		
				5		7	4	2 8
				9	7			3
	5		4					7
4		3	1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4	1	8	2	9	9	2	6
9	6	2	2	9	1	7	8
8	9	2	6	7	2	9	1
9	9	6	4	1	8	2	2
2	8	7	1	2	2	9	6
1	2	2	9	6	9	8	4
2	2	9	9	7	2	6	1
6	4	1	8	9	2	9	2
2	2	2	2	8	6	1	7

9	6	2	8	9	1	2	7
1	2	6	9	2	7	8	2
2	7	8	5	2	6	9	2
8	2	7	2	2	2	1	9
9	9	2	1	6	8	7	2
6	2	1	7	9	2	8	2
2	9	2	6	7	2	9	1
2	8	9	2	1	2	6	7
7	1	9	2	8	2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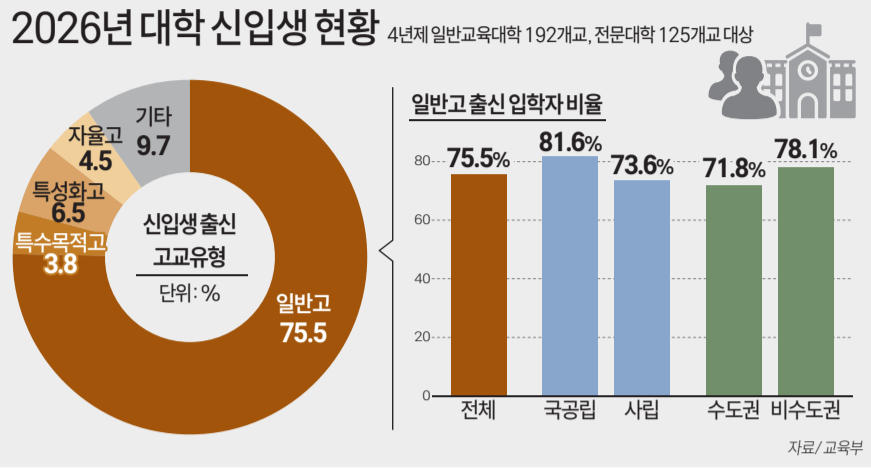
대학 산학협력 온도차... 창업기업 늘고 기술이전은 감소

교육부,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4년제 기회균형 9.3%→9.5%
기술이전 건수·수입료는 줄어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산학협력 지표에서는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과 창업기업, 계약학과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실적과 수입료는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에는 신입생 선발 결과 등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이 공시된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 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항목은 신입생 기회균형 선발 결과,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 기술이전 실적과 수입료,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창업기업·창업감좌, 계약학과 운영 현황 등이



다.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 확대 흐름은 이어졌지만, 실제 입학 비율은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경우 2026년 전체 입학생 35만8499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3만3938명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9.5%로 전년 9.3%

보다 0.2%p(포인트)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6%로 국·공립대학 9.1%보다 0.5%p 높았다. 수도권대학은 10.4%로 비수도권 대학 8.8%보다 1.6%p 높았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7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9.7%, 특성화고 6.5%, 자율고 4.5%, 특수목적고 3.8% 순이었다. 전문대학에서도 기회균형선발 비중

은 증가했다. 2026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4만9347명 가운데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4458명으로, 비중은 3.0%였다. 전년 2.5%보다 0.5%p 올랐다.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은 일반고 59.1%, 기타 19.0%, 특성화고 18.7%, 특수목적고 1.9%, 자율고 1.4%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69.5%로 비수도권 50.7%보다 18.8%p 높았다.

산학협력 지표는 항목별로 엇갈렸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2025년 기술이전 실적은 4669건으로 전년 5575건보다 16.3% 줄었다. 기술이전 수입료도 1003억7000만원으로 전년 1183억2000만원보다 15.2% 감소했다.

창업 관련 지표에서는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2025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신규 학생 창업기업은 1998개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교원 창업기업도 414개로 13.1% 늘었다.

계약학과는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증가했다. 2026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약학과 수는 236개로 전년보다 1.3% 늘었고, 학생 수는 1만103명으로 4.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가 줄었지만 학생 수는 늘었고, 혼합형은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증가했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지표도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2025년 전문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75건으로 전년보다 29.2% 감소했다. 반면 기술이전 수입료는 3억4300만원으로 20.4% 증가했다. 건당 평균 수입료도 457만원으로 전년보다 69.9%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은 실제 등록 비율을, 산학협력은 단순 건수보다 수입료와 학생 참여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대학 공시자료가 대학 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 지점을 찾는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

내달 1일부터 한달간 교직원 대상
이용수기·업무경감 제안 접수

서울 학교 교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줄일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이 7월 한달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1년을 맞아 학급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 및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와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등 2개다. 응모자는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dubliners1@se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수기 분야는 학교통합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경험을 작성하면 된다. 현장체험학습, 인력 채용, 호봉 업무, 교과서 배부 등 학교통합지원과 주요 업무를 이용한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중실하게 작성된 응모작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카페·베이커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분야는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 개선방안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성, 실현 가능성, 업무경감 효과성, 확산 가능성, 구체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와 우수 각각 1

명, 장려 5명 등 우수작 7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이용사례를 학교통합지원과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학교업무 경감 개선 과제 검토에 반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합지원과 이용 경험을 공유해 학교업무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활용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금천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확정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도로 확폭 추진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가 최고 3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독산로와 목골산 사이에 있는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고 35층, 2600세대 인파의 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높이와 세대 수는 향후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산2동 380 일대 계획의 핵심은 동서 연결도로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이다. 시는 독산로 서측 독산동 1036·1072 일대 신설 도로와 연계해 폭 15m 규모의 동서 연결 도로를 만들고, 북측 독산동 1022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도 단계적으로 도로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문교초등학교 앞

교차로도 개선해 통학로 안전을 높인다.

독산로는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차로, 폭 29m 규모로 넓힌다. 버스비도 포함된다. 주변 이면도로는 보행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해 확폭하고 보차분리를 추진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독산로를 제외한 주변 도로에 4곳 배치한다.

생활편의시설도 확충된다. 시는 독산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배치하고, 지형 차이를 활용해 공원 하부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도 반영했다. 시흥대로와 독산로, 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고려해 도로와 공공보행도로, 단지 내 외부공간을 연결한다. 목골산과 인근 저층주거지를 감안해 단지 경계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적용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2027 WCO 기술컨퍼런스 개최

내년 3월 9~11일 송도서 개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7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세계관세기구 주최, 관세청 주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협력으로 개최된다.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 총회에서 인천이 '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행사는 187개 회원국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1,5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인천의 MICE



지난 1월 세계관세기구(WCO) 기술 컨퍼런스 현장. /인천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행사 유치에 관세청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기 정책제안 3020건 인천2호선 연장 '최다'

경기준비위, 온라인 정책제안 접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시민참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지난 19일부터~26일까지 8일간 운영한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총 3020건의 도민 정책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 11개 분야에서 총 3020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교통·건설·환경' 분야가 전체의 8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제안이 1107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6월 30일(화) 음력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2~33°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동 긴장 재고조에 국제유가 선물 오름세... WTI 배럴당 70달러 ↑
▲美 공화당도 네타냐후 총리에 등 돌려... 이스라엘 고립 심화 /사진 뉴시스

▲트럼프, 선거 개편 구상 제동... 법원·공화당 잇단 반발
▲中관영지 "한국 탈락, 亞축구에 경종 돼야" 보도... SNS도 시선 집중

▲중국, 대기업 20곳 이중용도 품목 우려 대상 지정
▲日다카이치 지지율 2%p ↑... 9개월 연속 60%대 후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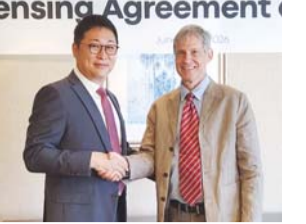


더본코리아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니



Life

국소부위
지방분해주사
마이크로 뷰티 격돌
L2



소외된 곳부터 촘촘하게... 기술과 마음 잇는 '행복망'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코스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공헌도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의 본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로 진화하고 있다.

코스콤은 'IT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기술기업의 전문성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ESG 활동을 확대 중이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은 ▲'IT's 희망 ▲'IT's 이웃사랑 ▲'IT's 글로벌 ▲꿈나무 장학사업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코스콤의 사회공헌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사람 곁으로 직접 다가가는 일'에서 시작된다.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부터 장애인 IT 창업 지원,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까지 기술과 사람을 잇는 사회공헌을 통해 금융 IT 기업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다.

◆참여가 만든 변화...임직원이 만드는 ESG

코스콤은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코스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코스콤이 올해 추진 중인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스콤은 매달 본부별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월 영등포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진행한 배식 봉사와 후원금 전달도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 중 하나다.

사내 동호회 활동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인공와우 기기 착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인공와우 머리망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당시 코스콤 사내 뜨개 동호회 '뽀자락 뽀자락'과 연계해 진행했으며, 동호회 회원들이 제작 방법을 안내하면서 일반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동호회 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신승환 코스콤 경영리스크관리부 부서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생활 속 상생 이어간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꾸준하다. 코스콤은 희망드림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빨래방·공유주방·교육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부산시 동구 희망드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



코스콤 임직원들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임직원 참여 확대 '1본부 1봉사활동' 무료급식소 찾아 봉사, 후원금 전달 청각장애 아동에 인공와우 머리망 인공와우 기기착용 돕는 머리망 제작

지역 취약계층 위한 공동시설 확충 빨래방·공유주방 등 생활밀착형 지원 국가유공자,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열어 경제적 자립 돕고 창업지원체계 강화

구지원봉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앞서 동구 지역 마을회관 네 곳에 빨래방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탈북민,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15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공헌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쌓은 바 있다.

또한, 당사 사업장이 위치한 안양시에도 '희망드림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저소득 주민 110명에게 냉감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구에도 올해 8월 영등포구지원봉사센터와 협력해 골목길과 대로변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10곳에 4인용 유모차를 지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부산 지역 내 고품화

1 (왼쪽부터)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2025 코스콤 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전달식'에서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코스콤 임직원들이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인공와우 머리망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빨래방·공유 주방·교육장 등 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는 임직원 60명과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코벨소 서식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단순한 환경정화가 아니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사회공헌의 의미를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5월에도 폭 넓은 활동이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직원 41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코스콤은 매년 현충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 홀몸 어르신 525명을 위한 보양식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홍석원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IT로 더 나은 내일을...디지털 사회공헌

코스콤의 사회공헌은 봉사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 IT 인프라 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어온 중증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코스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IT보조기기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IT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코스콤은 푸르메재단과 함께 '제3기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추진하며 총 70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2000만원 확대한 규모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다.코스콤은 앞서 1·2기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 채용 플랫폼, 자동 점역 서비스, 화기 질한 유전자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창업팀을 지원해 왔으며, 일부 팀은 매출 달성, 특허 등록, 해외 진출 협업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스콤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사 특성을 살린 IT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코스콤은 전국지역아동센터 대상 나눔플러스 I-ON 플랫폼 구축 지원, 다문화가정 취업교육, 경력단절 여성 IT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IT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코스콤은 기술과 사람이 연결될 때 비로소 ESG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철학을 통해 'IT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처럼 32강 좌절된 스코틀랜드... "타탄 아미는 최고, 대표팀은 최악"
▲경찰, '홍명보 선임' 축회회장 수사 2년째... 고발 8건 접수 /사진 뉴스시스

▲한국, FIFA 랭킹 32위까지 추락...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이강인, 스페인 매체 조별리그 베스트11 선정... 32강 탈락 국가 중 유일

▲'최악 성적표' 홍명보호, 32강 실패에도 포상금 총액 20억8000만원
▲홍명보 감독 사퇴에 외신도 주목... "대회 전부터 신뢰 얻지 못해"